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KTX

바로 지금, 여행

신안



10

예술이 그린 섬, 신안 | 가을에 만나는 세계유산, 서울 의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안동 맛집

 KOLON SPORT



CONTENTS

2023.10

038 테마 여행 신안

구름이 아물거리는 날 전남 신안으로 향했다. 끝없이 펼쳐진 무한의 다리를 걷고, 바다 곁 미술관을 둘러보다 해변에 앉았다. 태양이 숨은 밤하늘에선 은하수가 반짝이며 인사를 건네 왔다. 10월, 예술 섬 자은도가 우리를 부른다.



AHILO

2023.10



“1초의 소중한 시간을 알기에”

진료의 기다림을 빠르게
회복의 기다림을 빠르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그랜드오픈
대한민국 의료문화의 새로운 시작이 되겠습니다



010

세계 도시 이야기

애니메이션 <코코>에 영감을 준 도시, 멕시코 과나후아토는 지금 축제가 한창이다.

012

잡학 사전

드라마 <마스크걸>이 화제다. 누가 왜, 언제 가면이 필요한가, 작품을 살펴봤다.

014

우연한 발견

버추얼 휴먼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아담부터 이세계아이돌까지, 가상 인간의 세계를 엿본다.

016

그곳에 가면

올가을 성대한 '힐링폴링' 축제를 마련한 도시 수원원의 이야기를 담은 물품을 소개한다.

020

맛집 탐방

예스러운을 간직한 맛의 고장 안동에서 전통을 새롭게 재해석한 미식 공간을 만났다.

056

이 계절 이 여행

성밖기 전통이 깃든 전북 고창 고창읍성에서 모양성제의 풍경을 그리며 성을 걸었다.

068

이색 여행

지역 주민·사업체·지자체가 뜻을 모아 만든 DMO의 제안을 따라 금산·공주·홍성에 간다.

074

기차 타고

서울 청량리역과 가까운 유네스코 세계유산, 의릉에서 일상에 여백을 찾았다.



KORAIL INFORMATION

102

코레일 소식

11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12

열차 이용 안내

114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 및 외국인 등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경험 설계

- ▶ 예약 진료 검사 수납까지 원스톱 서비스
- ▶ 모바일 예약 및 대기 시간 안내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 ▶ 진료수납 하이패스 구축

공간 설계

- ▶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까지 직통 에스컬레이터 개통
- ▶ 심혈관센터 암센터 노신경센터 등 다학제 협진을 위한 진료 공간 배치

힐링 설계

- ▶ 환자 보호를 위한 힐링공간 설계
- ▶ 미디어월 설치

들어가는 글



때로는 시 한 줄, 소설 한 편이 우리를 여행하게 합니다.
 시인 최영미의 '선운사에서'와 소설가 윤대녕의 <상춘곡>은
 어리숙한 문학도를 전복 고창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첫인상이 자꾸 떠올라서,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더 고창을 다녀왔어요.
 볼 만큼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도 고창읍성은 처음이었습니다.
 성밖기놀이 하던 옛 여인처럼 성곽을 천천히 거니는 동안
 아직 가 보지 않은 곳, 여전히 처음인 것이 많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올가을, 떠날 곳을 정하지 못한 여행자에게
 제50회 모양성제가 열리는 고창읍성을 권합니다.
 답성놀이와 강강술래, 성황제와 농악 한마당, 흥겨운 콘서트가
 지적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충만한 당신을 기다립니다.
 미지의 즐거움에 기꺼이 다가서는 10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 수석 기자 강은주

KTX

바로 지금, 여행

OCTOBER 2023

2023년 10월호 제20권 제10호 통권 제232호
2023년 10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심정섭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수석 기자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기자 옥송이 ocksong@seoulmedia.co.kr
남혜림 nhr@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번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객원 디자이너 엄정윤

사진
라이트팩토리(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t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제작팀 팀장 이수행
차장 정승현 **과장** 정수호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사원** 조소연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 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799-9338 **광고** 02-799-9175

신안

김밥 페스타

신안군 자은면 1004 뮤지엄파크
10월 20일(금) ~ 10월 22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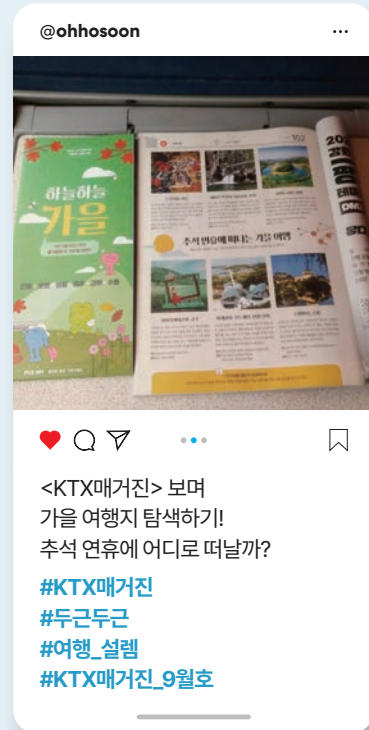
주 최 : 신안군

주 관 : 김밥페스타추진위원회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ktxmagine

선물 받아 가세요!

기차 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고농축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및 모공 관리에 도움을 주는 탈모 예방 샴푸 '풀빅 헤어 샴푸 & 토닉 세트'를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두피와 모발 케어에 적합한 약산성 샴푸로 온 가족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제품 문의 1522-9158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KTX매거진>을 만나 보세요!

*당첨자에게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제8회 강진만 추추는 갈대축제

추추는 갈대길 따라 피아노 꽃 사랑

The 8th GangjinBay Reeds Festival

2023. 10. 13.(금)
~ 10. 22.(일)
강진만 생태공원

- 10. 13(금) 개막축하공연 (박재경, 비비지)
- 10. 14(토)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 10. 15(일) 버스킹 페스타
- 10. 21(토) 7080 리바이벌 레전드 가요대전 (조성모, 민해경, 김범용)

주최/주관 강진군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 Jan Sochor / Getty Images

Guanajuato *day of the dead*

영혼이 행복한 시간, 과나후아토

멕시코 고원에 자리한 과나후아토는 10월이면 축제가 한창이다.

낮선 여행지에서 현지 축제를 맞닥뜨린다면 그 도시와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곳의 진정한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다. 어둠한 밤에도 촛불이 거리를 밝혀 환상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맘때 과나후아토에서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든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주황색 골드메리 꽃길을 따라 죽은 자가 산 자의 세계로 넘어온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오프렌다스(ofrendas)라 불리는 제단. 꽃과 촛불, 푸짐한 음식과 해골 모양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생전 사진까지. 멕시코 사람들은 이 물품을 제단에 놓아야만 죽은 자가 이승에서 가족을 조우하리라 믿는다.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걸쳐 멕시코 전역에서 기념하는 명절인 '죽은 자들의 밤'이다. 애니메이션 <코코>의 주된 이야기가 이 명절을 바탕으로 한다. 과나후아토는 영화 속 사후 세계의 배경이 된 도시다.

피필라 전망대에 오르자 그 이유를 단번에 이해한다. 발아래 알록달록한 주택이 펼쳐진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도로가 인상적인데, 이 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도시 이름은 선주민인 타라스코족의 언어 중 '개구리의 언덕(Quanax-juato)'에서 유래했다. 개구리가 울던 조용한 언덕은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던 시기 은광을 발견해 번곡점을 맞이한다. 광산을 따라 발전한 도시이니만큼 광산이 가져다준 부유함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당시의 도시 문화가 느껴지는 후아레스 극장에 들렀다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우니온 정원에서 휴식하며 그 시절 번성한 모습을 그려 본다. 10월, 이곳에서는 <돈키호테>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를 기념하는 종합 예술 축제 '세르반티노 인터내셔널 페스티벌'도 열린다. 산 자와 죽은 자, 은광의 영광, 종합 예술 축제 등 많은 것이 공존하는 과나후아토. "Seize the moment." 영화 <코코>의 대사처럼 순간을 행복하게, 충실히 살아가라 말한다. 1



18세기 은 생산지로 번성한 과나후아토는 아름다운 시가지로 유명하다. 화가 디에고 리베라가 태어났고, 에스파냐 문학가 세르반테스를 기리는 축제가 해마다 열려 문화도시로도 꼽힌다.



2023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페스타



2023.10.1 SUN - 31 TUE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서울 광화문광장 및 전국

18기 어린이와 어른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재단연합회 (사)한국문화의집협회 한국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재단연합회



전국, 어디서나 문화가 있는 날

10월 한달간 공연, 전시, 축제 등 전국에서 300회 이상의 문화가 있는 날 특별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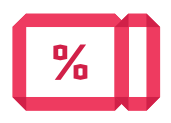
10월 1일(일) ~ 31일(화) / 31일간



10주년 페스타 특별행사 3일간의 특별한 행복

지역에서, 문화시설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가 있는 날을 모두가 경험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국민 축제입니다.

10월 20일(금) ~ 22일(일) / 3일간



매일매일 문화 할인 맨날 만날 문화쿠폰

매일 오전 10시에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5,000원 문화쿠폰을 제공합니다.

10월 1일(일) ~ 31일(화) / 31일간

※ 자세한 내용은 인터파크에서 확인해주세요! www.interpark.com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날입니다.

1

마스크걸



연예인이 되고 싶었으나 텔레비전에는 죄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뿐. 학창 시절 김모미가 아무리 춤을 잘 추어도 결론은 얼굴 평가다. 관심과 박수 없이는 도파민도 없는 황량한 인생, 평범한 회사원 김모미는 퇴근 이후 마스크를 쓰고 인터넷 방송을 하며 인기를 끈다. 꿈이 절반은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상황은 예기치 않게 파국으로 치달는다. 몸매는 물론 눈, 코, 입, 머리 크기, 어깨 각도 등 외모를 나노 단위로 평가하는 사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누구나 그 모습 그대로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녔다는 진실을 모두가 아는 세상이길. 자세히 보아도 예쁘고,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예쁘다.

2

맨 오브 마스크



전쟁의 처참함은 글로 묘사하기가 불가능하다. 사람의 생명이 갑자기 끝나고, 그의 가족이나 연인, 친구는 부채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생존자의 고통은 또 어떤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프랑스 군인 에두아르는 얼굴 하관을 잃는 부상을 당한다. 파리에 돌아와 보니, 전쟁으로 이득을 얻었거나 전쟁과 관계없이 일상을 영위하는 기득권층이 눈에 들어온다. 마스크로 얼굴을, 나아가 부상병으로서 자신을 감춘 그는 예술적 재능을 이용해 거대한 사극을 계획한다. 희생. 영웅 따위 말을 던져 주고 정작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언급 못 하도록 입을 막는 세상을, 하관을 잃은 주인공이 은유하는 듯하다.

가면 쓴 인생

<마스크걸> 김모미는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마스크를 썼다. 우리는 왜, 언제 가면이 필요한가, 작품을 찾아왔다.

3

브이 포 밴데타



2040년 영국, 곳곳의 카메라가 시민을 감시하고 피복색, 성적 지향, 정치 성향이 정부 지도자와 다른 이는 '정신 집중 캠프'에 끌려간다. 이런 '평화로운 나라'에 균열을 내는 존재가 나타났으니, 가이 포크스가 가면 착용한 브이다. 가이 포크스는 1605년 종교 탄압에 맞서 국회의사당 폭파를 시도하다 처형된 인물로, 후대에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미국 뉴욕 월가나 홍콩 등 전 세계 시위 현장에 그의 가면이 등장하곤 했다. 모든 사회는 완벽하지 않고, 시민은 발언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얼굴 드러내고 시위해도 피해 입지 않을 권리 또한. 영화 후반부, 군중이 일제히 가면을 벗는 장면이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4

반칙왕



내가 내 얼굴로 살기에 세상은 너무 팍팍하다. 너는 어떤 사람이라는 규정이 행동을 제약하고, 속엿말 한번 시원하게 내뱉으려 해도 뒷감당이 무섭다. 아, 마스크가 필요하다. 소심한 은행원 대호는 현실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우연히 프로레슬링을 시작한다. 타이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경기 중에 밀가루를 뿌리고 상대 선수 엉덩이를 찌르는 반칙을 하면서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고 해방감을 느낀다. 누구나 가슴속에 가면 하나쯤 품고 사는 법. 오늘날 직장, 집, 학교에서 꼭 참고 아무렇지 않은 양 웃은 그 얼굴이 내 것인가, 아니면 이야말로 가면인가. 우리의 애달프고 정든 가면에 건배.

THE 31TH YEONGDO BRIDGE FESTIVAL 2023

영도다리축제

어제와 오늘의 만남

10/13(금)

홍경민 · 고현주

10/14(토)

최태성

10/15(일)

송가인

개막주제공연 / 해상물꽃쇼 / 영도다리강습소 / 공연체험 프로그램

2023.10.13(FRI)~15(SUN) 아미르공원 · 영도대교 일원
 THE 31TH YEONGDO BRIDGE FESTIVAL 2023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임로 301번길 55



AUTUMN PROMOTION

10월 카카오톡 특별 프로모션

26층 레스토랑 씨엘로 : 생맥주 2잔 + 치즈스틱 무료 제공

* 반려견 객실 투숙객, 펫 푸드 테린 1개 추가 무료 제공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영무파라드호텔' 채널을 친구추가 후 '가을 단풍' 메시지를 보내면 10월 한 달간 특별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럭스 120,000 ~

반려견 디럭스 160,000 ~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QR



※ 객실 타입 및 객실 이용 날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버추얼 시대

소프트웨어가 빛은 '버추얼 휴먼'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1998년부터 2023년까지 가상 인간이 걸어온 행보를 짚는다.



사이에 현실과 가상 세계의 벽을 허물 정도로 기술이 발전한 것이다.

아담 이후 사이버 가수에 도전하는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캐릭터를 활용한 그룹 'K/DA'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가상 버전 'ae-에스파', 버추얼 아이돌 '이더니티' 등이 발자취를 남겼다. 버추얼 휴먼·유튜버들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제작한 캐릭터를 내세워 사람들과 소통한다. 물론 캐릭터 뒤에 사람은 존재하지만, 그들은 인터넷을 소통 창구 삼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팬들과 친근하고 진솔하게 교감한다. 주목할 만한 그룹은 2021년에 데뷔한 버추얼 걸 그룹 '이세계아이돌'이다. 인터넷 방송인 우왁굳의 콘텐츠 사이버 아이돌 프로젝트에서 탄생한 그룹으로, 지난 8월 공개한 3집 <키딩>이 국내 음원 차트 6위, 빌보드 한국 차트 3위를 차지해 대성공을 거둔다. 2023년 3월 데뷔한 버추얼 보이 그룹 '플레이브'도 공중파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라이브 방송으로 팬과 소통하는 등 두 그룹은 실제 아이돌 못지않게 활발히 활동 중이다.



"비록 함께할 순 없지만/ 너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세상으로부터 널 지킬 거야." 절절한 미성으로 마음을 고하는 노래, '세상엔 없는 사랑'을 기억하는가. 1998년, 가요계에 새바람을 일으킨 한국 최초의 사이버 가수 '아담'은 당시 신선한 충격 그 이상이었다. 가상 인간인 그가 사랑하는 이의 곁에 머물기 위해 사이버 세계를 떠나 현실로 온 콘셉트가 특이한 데다 노래 실력도 준수했기 때문이다. 그의 1집 음반은 20만 장 판매를 달성하는 등 기염을 토한다. 이후 '류시아' '사이다' 등 사이버 가수가 잇따라 데뷔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시대를 앞선 콘셉트와 부진한 기술 탓이었을까. 아담은 여러 루머에 휩싸이다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진다.



사이버 세상을 향한 관심의 불씨는 2020년대 들어 다시 몸집을 키운다. 현실과 같이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 세계 '메타버스'가 보다 친근하게 다가오면서부터다. 나만의 캐릭터를 조작해 테마별 가상 공간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교류하는 증강현실 아바타 플랫폼 '제페토'가 화제를 모으기 시작한다. 여기에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가 자동차, 은행 등 각종 광고에 출연하며 미디어에 얼굴을 알린다. 20년



가상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점점 친숙해지자 음악·광고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가 도입한 한국 최초 버추얼 공무원 '새로미', 실시간 라이브 버추얼 휴먼 '나수아' 등 이제 메타버스는 현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지난 9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한국 최초로 메타버스를 연계한 오프라인 뮤직 페스티벌 '이세계 페스티벌'이 열렸다. 어색하기만 했던 가상 세계는 VR, AR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이미 현실에 스며들었다. 바야흐로 가상과 현실이 하나가 되는 시대다. 13

Standard & Deluxe



Deluxe 디럭스
더블/트윈/온돌



Deluxe 디럭스 오션
더블/트윈



Pet Deluxe 반려견 디럭스
더블/트윈/온돌



Standard 스탠다드
더블/트윈

Premier



Premier 프리미어
더블/온돌



Premier 프리미어 오션&버블
더블/트윈

Rooms YMPARADE

위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98번길 25

예약 및 문의 051.743.0003

홈페이지 ymparade.kr

힐링폴링, 알찬 수원

10월 수원화성에서 '힐링폴링'이라는 이름으로 축제 네 개가 열린다. 수원의 이야기를 알차게 담은 물품을 소개한다.

수원

1

(수원역 종합관광안내소) 수원시 관광 기념품 다양한 방식으로 수원을 기억하고자 수원역 종합 관광안내소로 간다. '수원화성 조립 채색 키트'는 직접 조립·채색해 수원화성을 완성하는 재미가 있고, '책갈피 자개'는 정조대왕 능 행차 모습을 담아 뜻깊다. 물의 도시로 불리는 수원을 재해석한 디퓨저 '수원의 향기'는 연꽃과 은방울꽃 향이 은은하다. 문의 031-228-4672



2

(행궁연가) 행궁동이 2021년 마을 주민이 모여 수원양조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수원에서 재배한 쌀로 막걸리 '행궁동이'를 빚기 시작했다. '행궁연가'는 수원양조협동조합의 양조장이자 판매장, 식당이다. 갓 만든 행궁동이를 떡볶이에 곁들이니 별미다. 행궁동에서 태어난 술이라는 뜻보다 궁동이를 붙이고 마시게 되는 술이란 의미가 더 잘 어울린다. 문의 031-255-9101



3

(뉴캠웍툰컴퍼니) 수원이 캐릭터 굿즈 미소를 머금은 입과 큰 눈이 매력적인 개구리의 이름은 '수원이'. 멸종 위기 한국 고유종인 수원청개구리를 널리 알려 생태계 보호 메시지를 확산하고자 만든 캐릭터다. 수원청개구리를 형상화한 수원이 굿즈가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수원이 보온보냉 텀블러'와 '수원이 에코백'은 실용적이고, '수원이 하트 키링' 등은 장식하기 좋다. 문의 031-307-8529



동남이노

4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수원시 씨앗도서관 씨앗을 책처럼 대출하고 식물을 키운 뒤 다시 씨앗으로 반납한다. 단, 반납은 자율. 한국 토종 씨앗을 알리기 위해 만든 수원시 씨앗도서관은 방문자에게 최대 씨앗 3종을 무상 제공한다.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지하 1층에 자리한 이곳은 파종 시기에 알맞은 토종 씨앗을 빌려 주는데, 수원도 여행하고 '식집사'도 될 기회다. 문의 031-273-832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위치한 [델피노]

3,000만원대 스위트 선착순 한정 모집 중!!

2023년 소노호텔앤리조트 신규회원 모집

글로벌 체인 리조트로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에서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위트 타입 분양 상품을 한정 모집**한다. 스위트 타입의 신규 상품은 입회금 일시불 납부 시 분양가 할인 혜택과 회원 앞으로 즉시 100% 반환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직후 바로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신규혜택을 회원의 취향에 맞추어 퍼스널라이징 할 수 있어 많은 고객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소노호텔앤리조트에서는 타업체와 차별화된 정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레저컨설턴트들이 존재한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이용 시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이 없도록 각 회원의 담당자가 배정되어 최초 계약에서부터 예약관까지 철저하게 1:1 회원 전담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신규혜택 중 종합 혜택 선택시 전국 16곳의 소노호텔앤리조트를 2년동안 객실을 회원요금의 최대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회원이 직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오션월드, 승마, 골프, 스키 등 소노호텔앤리조트의 레저와 스포츠 시설을 신규 회원권 하나로 무료 및 할인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개인 및 법인 명의로도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및 손비처리 기능이 가능하고 직원 복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노호텔앤리조트측은 "회원권 구입 후 사용하면서 성수기 리조트 예약이나 다양한 편의 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꾸준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고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 사업'으로 **2021년 10월 소노펠리체 델피노가 그랜드 오픈**했으며, 브레이크힐스 남해 등이 개발중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분양안내 자료와 카탈로그를 배송한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카탈로그를 배송해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상담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H.P 010-4140-6540

문의전화 **02)2222.5917**
(주말 및 24시간 상담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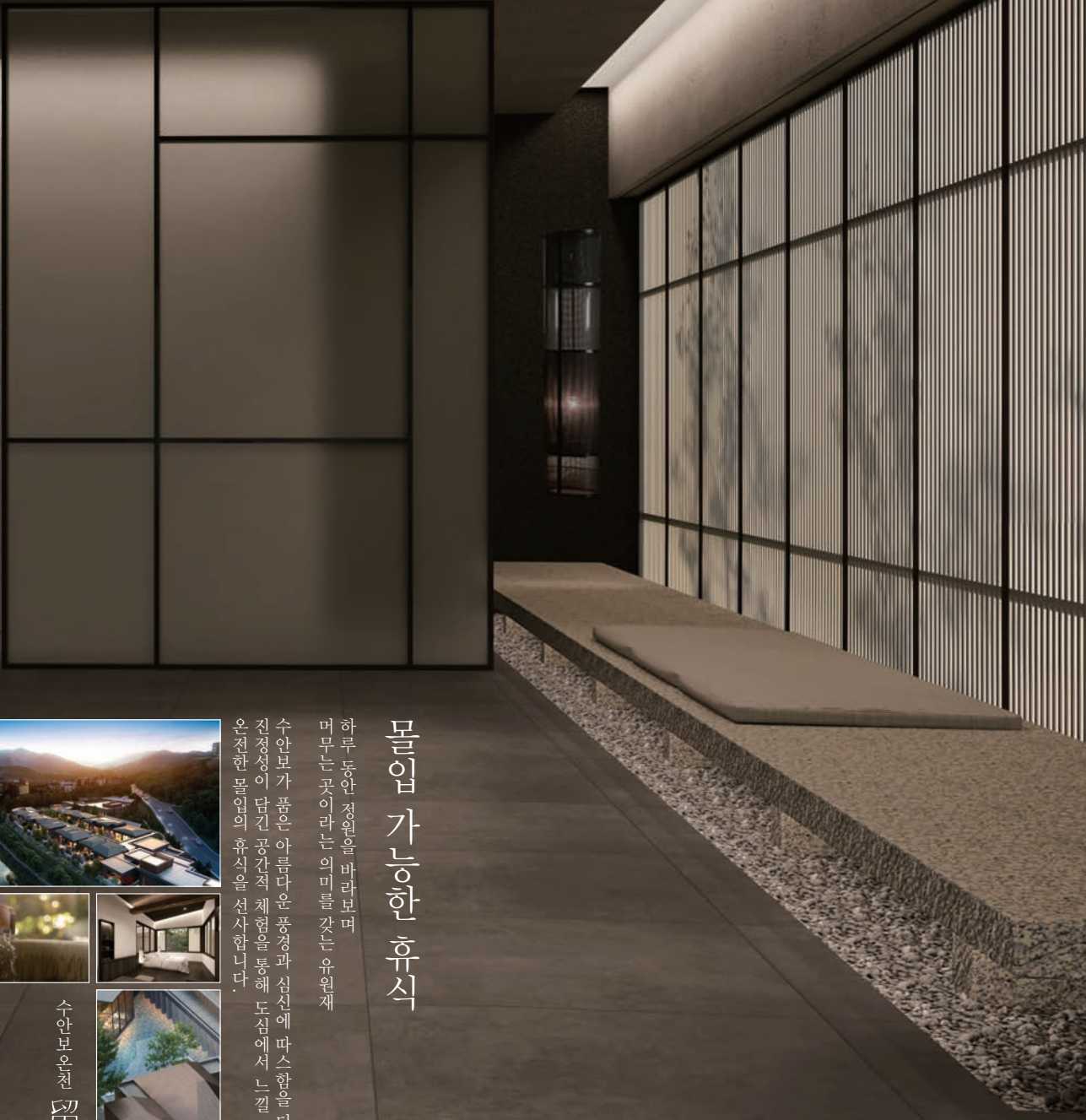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마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물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물입 가능한 휴식



구씨가문의 절대미각이 완성한 절세 국물

아워홈_진주식 속풀이 해장국 4.9점

옥송이 "어라? 이거 집에서 먹는 맛인데?" 첫 술 뜨자마자 튀어나온 말이다. 그제야 패키지의 '진주식'이란 글자가 보인다. 오, 제대로 구현했다. 부모님이 경남 합천 출신이라 영남 음식 먹으며 성장한 내가 인정한다. ★★★★★ / 남혜림 곱창을 사랑하는 제게 이 제품, 너무나 호감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콩나물, 쇠고기, 무, 실한 고명까지. 속은 물론 마음의 갈증까지 싹 풀리네요. ★★★★★ / 김현정 세상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잡수셨을 구씨 회장님 이름 달고 나왔으니 오죽하겠는가. 시침 뚝 떼고 뚝배기에 끓여서 내놓으면 기성품이라고는 눈치 못 챌 퀄리티다. 가격이 그만큼 비싸네요. 7800원의 압박... 국밥계의 스몰 럭셔리... ★★★★★ / 강은주 고도로 잘 만든 해장국은 빼어난 안주와 구별할 수 없다. 맛다. '해장술' 부르는 맛이다. 어쩐지 진주 강씨로서 뜻깊은 기분. ★★★★★

3.3점 삼양식품_맵탱 흑후추소고기라면

옥송이 맵지 않다는 평을 듣고 자신만만했는데, 역시 입맛은 다양하다는 걸 새삼 느낀다. 첫 입부터 강력한 매운맛이 식도를 찌르듯 강타한다. 그만큼 국물이 자극적이지만, 면과 먹으니 잘 어울린다. 쇠고기 향은 극호! ★★★★★ / 남혜림 매운 제품이라고 선배들이 하도 겁을 줘서 음료 콜○스까지 준비했습니다만, 예상과 달리 쇠고기와 흑후추의 풍미가 입맛을 당기네요. 국물이 진짜입니다. ★★★★★ / 김현정 '에디터 체험기'를 위해서라면 면을 먹는 비(非)라면파라서 올해 두 번째 라면이었다. 오오, 2023년은 라면의 해인가. 2월호에 이어 이번 라면까지 호감이다. 입안을 후려치는 매운맛이 아니라 맛있게 맵다. 건더기가 부실해서 좀 아쉬워요. ★★★★★ / 강은주 매운맛에 둔감한 편인데, 이건 예외다. 긴장한 허를 달래느라 정작 맛이 어땠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아직도 목구멍이 얼얼하다. ★★★★★



화끈함부터 알싸함까지 아우르는 매운 국물

이 계절, 국물이 국를

뜨끈한 국물 당기는 요즘. 때마침 쏟아져 나온 국물 요리 신제품을 만나 본다.



쇠고기와 건표고버섯으로 감칠맛 살린 국물

GS25_효뜨 소고기 쌀국수 3.8점

옥송이 지금 여기 베트남 아닌가요? 가 본 적도 없는 베트남 타령을 하게 되는 마성의 맛. 진한 국물과 얇게 썬 쇠고기가 일품이다. 게다가 고수 향기가 쌀국수의 풍미를 높인다. 즉석 쌀국수임을 감안하면 양도 넉넉한 편. ★★★★★ / 남혜림 아직 고수의 맛을 몰라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고수가 비누 맛으로 느껴져요... 가격에 비해 질은 제법 훌륭합니다. ★★★★★ / 김현정 고수까지 들어가서 진짜 쌀국수 느낌 물씬 나지만, 국물이 끝내 준다고 마구 들이켜서는 곤란하다. 다 마시면 나트륨 하루 섭취량 99퍼센트더라고요... ★★★★★ / 강은주 베트남에 다녀오면 한동안 '쌀국수병'을 앓는다. 증세는 다음의 말을 반복하는 것. "호찌민 노점에서 먹었던 5만 동짜리 쌀국수 맛이, 어찌구 저찌구." 그런 이에게 이 제품이 꽤 괜찮은 치료제가 될 것 같다. 4200원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 ★★★★★

4.1점 오투기_부산식 얼큰 돼지국밥

옥송이 마감 기간에 먹어야 하다니, 마음이 아프다. 반주 하고 싶은 국물이라 그렇다. 매콤한 고깃국에 밥을 곁들이니 완벽하다. 다만 양이 적어서 아쉽다. 국밥집으로 뛰어가 채우지 못한 허기를 달랠 뻔... ★★★★★ / 남혜림 제품 설명입니다. "소면과 부추를 곁들이면 더욱 풍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아, 얼큰하고 진한 국물에 소면까지 넣는다면... 궁극의 맛을 위해 마트 다녀올게요. ★★★★★ / 김현정 제가 음식에 겁 많은 사람인 걸 독자님도 다 아시겠지만, 돼지국밥 역시 처음이었습니다. 낯설다고 왜 피했을까 싶을 만큼 우왕~ 매콤하니 입에 착 붙네요. 돼지국밥이 이런 거라면 부산에서도 도전하고 싶어요! ★★★★★ / 강은주 매콤한 돼지국밥이 낯설어서 가우뚱했다. '다대기'나 '정구지' 무침을 넣는다면 이럴까 싶다. '부산'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납득 가능한 맛. ★★★★★



육수에 수육을 넣어 진하고 깊은 국물

*5점 만점

전통의 맛과 멋을 잇다, 안동 맛집 기행

옛것을 미루어 새것을 안다 해서 온고지신이다. 경북 안동에서 전통 식재료와 맛을 계승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집들을 찾았다.



安東

TRAVEL TIP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안동에서 풍성한 가을을 만끽한다. 2023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을 방문해 가슴속에 꿈틀대는 신명을 깨운다. 대한민국 명예 대표 문화 관광 축제로 지정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안동 하회마을에서 800년간 전승해 온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확장한 축제다. 10월 2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축제에서 흥을 발산하고, 다양한 탈 문화를 체험한다. 퇴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도산서원은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 절경을 이루겠다.



☘ 고등어 스테이크 파스타 1만 4000원 고등어 아란치니 1만 2500원
📍 경북 안동시 음식의길 87 ☎ 070-4086-9994



주인장 추천 안동 여행 팁
“아름다운 월영교 야경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10월 7일과 28일, 하회마을에서 열리는 선유줄불놀이도 놓치지 마세요!”

옥정밀 - 맑은 우물, 옥정(玉井). 옛 우물 이름이다. 어찌나 크고 물이 깨끗했는지 그 주변은 한밤에도 환했다 전한다. 동네 이름이 옥정동인 이유다. “재미난 이야기를 품은 ‘옥정’에 식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밀(meal)’을 합쳐 상호를 지었어요.” 권경은 ‘옥정밀’ 대표가 눈을 반짝이며 말한다. 정겨운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소박한 한옥이 반긴다. 마루에 앉아서 까래를 올려다보는 사이 고등어 스테이크 파스타가 식탁에 오른다. 안동을 대표하는 간고등어를 권 대표 스타일로 재해석한 음식이다. 지역성은 살리되 양식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일반 고등어를 사용한다. 주인장이 추천한 대로 고등어 살부터 찢어 파스타 면과 함께 먹는다. 노릇노릇 구워 같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고등어의 고소한 풍미가 오일 파스타와 절묘하게 어울린다. 자칫 느끼할 법한 조합이지만, 할라페뇨와 루콜라가 개운함을 더한다. 구운 고등어 살과 밥을 섞고 동글동글 빚어 튀긴 고등어 아란치니는 새콤달콤한 토마토소스가 입맛을 돋운다. 색다른 안동의 맛이 자꾸 생각날 것 같다.



이런저런

더있다



더있다 권영윤 대표는 2년 전 안동 금소마을에 들렀다가 대마 재배 광경을 맛닥뜨렸다. 안동은 대마 특구로 지정돼 있다. 그곳에서 대마씨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언젠가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리라 다짐했다. 카페를 준비하면서 권 대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식재료는 대마씨. 카페 '더 있다'의 대표 메뉴 대마초-코 브라우니의 탄생 배경이다. 대마초와 초콜을 합쳐 장난스러운 이름을 붙였으나 맛은 진지하다. 반죽에 마시멜로를 넣어 식감이 쫄득하고, 업장에서 직접 로스팅한 안동산 대마씨가 바삭바삭 씹힌다. 대마씨의 고소함이 초콜릿의 풍미를 배가한다. 전등에 갓을 덧대거나 소반을 테이블로 활용하는 등 인테리어에서 예스러움이 느껴진다. 곳곳에 비치한 안동 기념품도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엽서, 마그넷, 키링 등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굿즈다. 디자이너로 활동한 권 대표의 작품도 여럿 있다. 간고디(간고등어), 아나모나(알아 몰라) 등 안동 사투리를 새긴 엽서와 갓을 본떠 만든 갓생이 캐릭터 등이다. 지나치게 달지 않아 더욱 매력적인 안동사과 에이드를 마시며 기념품을 구경하는 동안 시간이 금세 흐른다.



주인장 추천 안동 여행 팁
 "고려 개국에 공헌한 세 분의 위패를 봉안한 안동 태사묘에서 역사 여행을 떠나 보세요. 시내에 있어 교통도 편리합니다."



☕ 대마초-코 브라우니 6000원 인절미 케이크 6000원 안동사과 에이드 5800원
 📍 경북 안동시 음식의길 69 1층 ☎ 054-900-5220



Panasonic

가을맞이 이벤트

파나소닉 안마의자 Sale FESTA

구매고객 최대 300만원 할인



연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88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4년 무상보증
 1년+3년

1 파나소닉 안마의자 Sale FESTA

- 기간 : 2023.10.01~2023.10.31



2 가을맞이 단풍여행 이벤트

- MAK1 제품 구매고객, 하이원리조트
 객실 이용권 1매, 조식 이용권 2매 선착순 증정
 - 유효기간: 2023.10.01~2024.06.30



하이원 호텔·콘도 객실 이용권

• 객실타입 : 그랜드호텔 (스탠다드룸, 슈페리어룸) 마운틴, 일 콘도 디럭스룸 (35평형)
 • 유효기간 : 2023.10.01 ~ 2024.06.30
 * 제외기간 : 2023.12.22(토) ~ 2024.02.11(일)

Panasonic

판매점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절찬 판매중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1588-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http://panasonic.kr>

파나소닉 프렌치 서촌분점 (02)542-8452 서울시 서초구 | 파나소닉 HM프렌치 (02)755-8452 서울시 중구 | 파나소닉 광안프렌치 (051)755-8452 부산시 수영구 | 파나소닉 통영프렌치 (053)427-3794 대구시 북구 | 파나소닉 대전프렌치 (042)223-8452 대전시 서구 | 파나소닉 순성프렌치 (053)421-8452 대구시 중구 | 파나소닉 중인프렌치 (051)255-0222 부산시 중구 | 파나소닉 명성프렌치 (051)633-8452 부산시 동구 | 파나소닉 HD프렌치 (062)522-2000 광주시 북구 | 파나소닉 제주프렌치 (064)757-8452 제주도 구정동 | 파나소닉 원인프렌치 (041)522-8452 천안시 동남구 | 롯데백화점 분점 9층 (02)726-4545 서울시 중구 | 롯데백화점 잠실 10층 (02)2143-7793 서울시 송파구 | 롯데백화점 강남 8층 (02)531-2045 서울시 강남구 | 롯데백화점 양산 8층 (031)909-3091 경기도 고양시 | 롯데백화점 선릉 7층 (051)730-3330 부산시 해운대구 | 롯데백화점 대전 81층 (042)523-5322 대전시 서구 | 롯데백화점 잠주 9층 (062)221-1932 광주시 동구 | 롯데백화점 인천 5층 (010)5571-530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롯데백화점 무역센터 4층 (02)3467-8348 서울시 강남구 | 롯데백화점 육동 81층 (02)2163-1843 서울시 양천구 | 현대백화점 판교 7층 (031)5170-1835 경기도 성남시 | 현대백화점 여의도 5층 (02)3277-0581 서울시 영등포구 | 현대백화점 대구 7층 (053)-245-2730 대구시 중구 |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빌드 10층 (042)720-6050 대전시 서구 | 신세계 백화점 분점 신관 2층 (02)310-1678 서울시 중구 | 신세계 백화점 강남 81층 (02)3479-1628 서울시 서초구 | 신세계 백화점 의정부 8층 (031)8082-0854 경기도 의정부시 | 신세계 백화점 대구 7층 (053)661-6723 대구시 동구 | 신세계 백화점 센텀 7층 (051)745-2389 부산시 해운대구 | 신세계 백화점 경기 6층 (031)695-1467 경기도 용인시 | 신세계 백화점 대전 지하1층 (042)607-8659 대전시 유성구

까치와 호랑이



주인장 추천 안동 여행 팁
 "KTX를 타고 안동에 오시는 분이시면 '안동 시티투어'를 활용해 보세요. 유명 관광지를 실속 있게 둘러보기 좋아요."

까치와 호랑이 해학적인 표정을 지은 호랑이 곁을 까치가 맴돈다. 길상을 상징하는 민화 속 모습이다. 지난해 문을 연 카페 '까치와 호랑이'도 좋은 기운을 바라며 이름을 붙였다. 붉은 벽돌로 지은 거대한 외관과 통창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내부가 차례로 시선을 잡아끈다. 이 카페는 김치 업체 학가산김치에서 오픈했는데, 메뉴에서 특이한 이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시그너처 메뉴인 호랑이버거 중 하나인 호랑이 김치버거는 치즈·상추·토마토·양파를 층층이 쌓고 100퍼센트 한우로 빛은 패티에 송송 썬 배추김치를 올린다. 양식과 한식을 접목했음에도 이질감이 없다. 아삭하고 시원한 숙성 김치가 한우 패티와 찰떡궁합이다. 과거 고추 도매업에 종사한 우국한 학가산김치 대표는 안동 농산물에 관심이 많다. 신선한 재료가 음식의 기본이라 생각해서다. 지역 농민과 계약 재배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인근 농가의 판로 개척을 위해 카페에서도 제철 농산물을 판매한다. 지역 특산품인 마·생강 메뉴도 개발 중이라는 말에 기대감이 더욱 커진다.

☞ 호랑이 김치버거 4500원 호랑이 치즈버거 4500원 호랑이수제식혜(500밀리터) 4000원
 ☞ 경북 안동시 북후면 물한길 16-11 ☎ 054-843-8785



한국문화테마파크 상설공연 <안동역에서>

올 가을, 안동에서는 그 시절 추억과 향수를 소환할 공연이 펼쳐진다.



체류형 복합문화단지 <한국문화테마파크>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를 보유한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고즈넉한 여유를 품은 유산과 탈춤의 흥겨움을 동시에 갖춘 안동에 가면 16세기 조선의 산성 마을을 만날 수 있다. 최대 2천 7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ADCO 안동 국제 컨벤션센터와 함께 체류형 복합문화단지인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상설 공연이 운영되어 관광객들에게 안동의 새로운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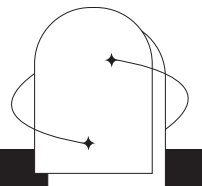
스테이션 로맨스 뮤지컬 <안동역에서>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다.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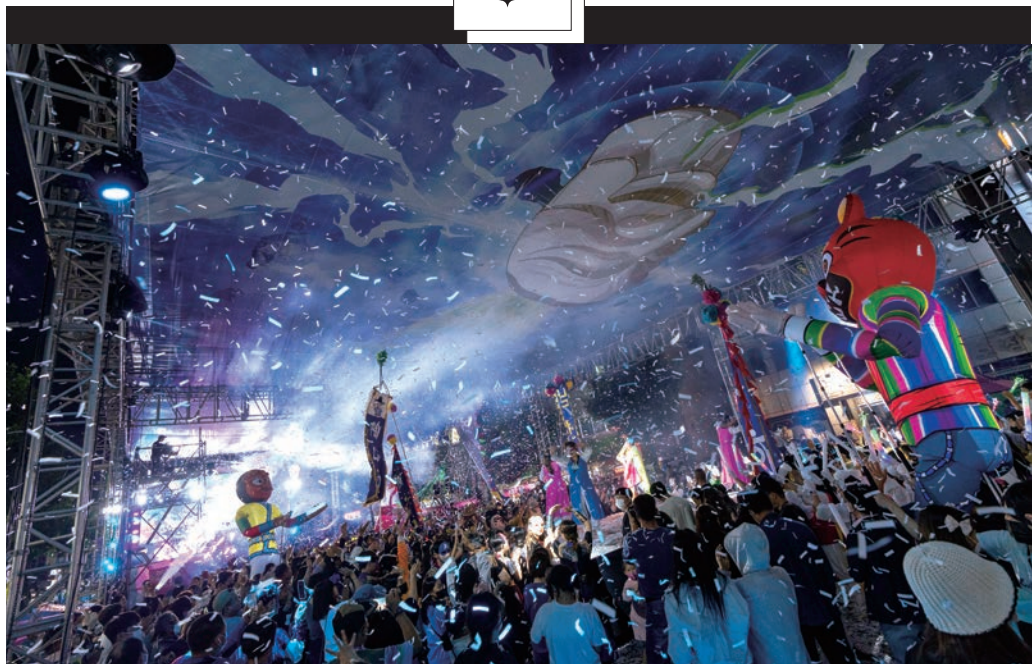
휴대폰이 무어던가. 전화도 맘 편히 할 수 없던 시절의 애타는 사랑을 이야기한 노래 안동역에서. 올 가을, 안동에서는 그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소환할 공연이 펼쳐진다. 안동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첫사랑의 설렘과 사랑, 이별과 눈물이 익숙한 선율을 따라 흐른다. 첫눈이 내리는 날 만나자고 했던 사람을 기억하는지. 그 날의 약속이 진짜로 지켜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아파하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보는 어긋나버린 사랑의 타이밍에 아파하는 여자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로맨스가 펼쳐진다. 무작정 누군가를 기다려본 청춘의 시간, 그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찾아 떠나볼까. 혹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시절의 눈부시게 찬란했던 나의 청춘을. 바로 그 곳 안동역에서.

- 매주 토-일 오후 2시 한국문화테마파크(안동시 도산면) 전통극 공연장
- 미래문화재단 054.841.2433





what's up



• FESTIVAL •

202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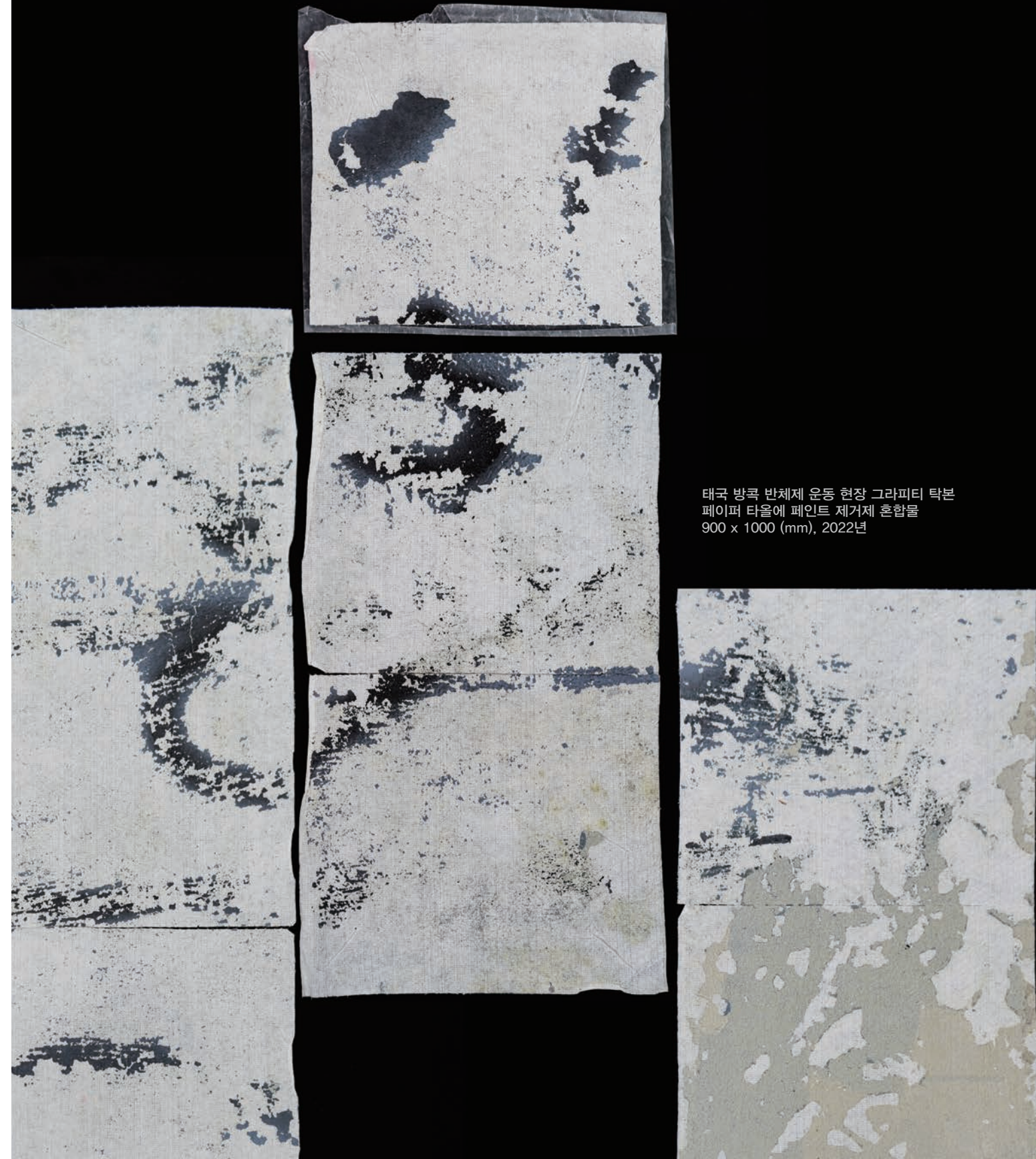
안동	→	10.02~09
----	---	----------

한국 문화의 정수, 탈춤을 중심으로 세계인이 하나가 된다. '화려하게 꽃피는 탈과 탈춤'을 주제로 여는 축제에 안동이 들썩인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북청사자놀음을 포함해 고성오광대·송파산대놀이·봉산탈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는 최초로 제주입춘굿을 선보인다. 탈을 쓴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세계탈놀이경연대회는 물론, 10개국 11개 팀의 해외 공연단과 18개 팀의 한국 공연단을 초청했으니 풍성한 춤 한마당이 되겠다.

장소 경북 안동 구 안동역 외 문의 054-840-3424

2023.10.10(화) - 10.13(금)
서울 KOCCA콘텐츠문화광장 스튜디오2

한국콘텐츠진흥원 융복합콘텐츠시연지원 그래피티의 보존복원을 위한 사물지능 스프레이 페인팅



태국 방콕 반체제 운동 현장 그래피티 탁본
페이퍼 타올에 페인트 제거제 혼합물
900 x 1000 (mm), 2022년

what's up



• FESTIVAL •

2023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대전 10.20~22

과학 도시 대전에서 우리의 미래를 두 눈으로 확인한다. 한빛탑을 배경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라이팅 쇼와 홀로그램 퍼포먼스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대전컨벤션센터, 엑스포과학공원 등에서 AI·로봇·드론·메타버스 같은 과학기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여기에 과학자 버스킹·과학콘서트 등 유익한 강연도 연다.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외 문의 070-7734-3526



• FESTIVAL •

2023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페스타

전국 10.01~31

모든 이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할 권리, 문화권. 이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 시행 10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이 축제의 장으로 바뀐다. 한 달간 매일 문화 쿠폰 100장을 발행하고, 공연·전시 등을 300회 이상 진행한다. 청춘마이크페스티벌 등 특별 행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일부터 이를 동안 이어진다.

장소 서울 광화문광장 및 전국 문의 070-4272-7330



부산 로컬 여행

송도해상케이블카에서 아로새긴 가을의 추억

부산 구석구석 숨은 명소를 찾아다니는 '로컬 여행'을 계획한다. 탁 트인 바다와 흥미로운 볼거리가 모여 있는 송도가 우리의 목적지다.

나뭇잎이 붉게 물들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근사한 풍경을 따라 거닐며 나만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로컬 여행을 떠난다. 목적지는 부산, 하기도 송도다. 마침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때다.

#백년골목길, 송도 로컬 여행의 시작점
송도해수욕장에 다다르자 바다가 눈부시게 반짝인다. 파란 물빛을 뒤로하고 우선 백년골목길 먹거리 타운에 들어선다. 분식집, 백반집, 치킨집, 국숫집...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선 식당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긴다. 이곳저곳에 들러 허기를 달랜 뒤 송도해수욕장 구름산책로를 거닐기로 한다. 시원스러운 바다를 바라보며 송도해상케이블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촬영한다.

#송도해상케이블카, 1.62킬로미터의 쾌감
이제 송도해상케이블카 '크리스탈 크루즈'에 오를 시간. 바닥 투명 강화유리로 만들어 짜릿함이 두 배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풍광에 환호성이 절로 나온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동쪽 송림공원에서 서쪽 암남공원까지 1.62킬로미터 거리를 활공한다. 최고 높이 86미터까지 치솟을 때면 마치 갈매기가 되어 비행하는 기분이 든다.

#송도스카이라이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지금
케이블카가 송도스카이라이프에 정차하니 '다이노 어드벤처'의 살아 움직이는 듯 거대한 공룡이 마중 나와 있다. 노란색으로 물든 '달팽이 가든'에 잠시 머물며 여유를 만끽하고, 압도적 규모를 자랑하는 '소원의 용'에 닿아 마음속 소망을 고이 적어 걸어 본다. 3층 전망대에 올라 가면 귀여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어린 왕자를 만난다. 캡슐 안에 추억을 담아 보관하는 '모멘트 캡슐', 손 글씨 엮서를 보내는 '느린 우체통'과 '메시지 보틀'에 소중한 기록을 남긴다.

#포토 존, 사진 한 장에 담은 특별한 여행
'천국의 계단'과 '부산의 달과 별' 포토 존도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파랑던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시간, 다시없을 오늘의 추억을 사진으로 간직한다. 송도해수욕장의 그림 같은 모습, 송도해상케이블카의 짜릿한 감각, 송도스카이라이프에서 마주한 산과 바다의 절경.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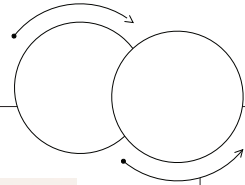
송도해상케이블카

주중 1시간, 주말·공휴일 2시간 동안 송림주차장과 남항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발권은 운행 종료 30분 전에 마감한다.
요금 크리스탈 크루즈 2만 2000원, 에어 크루즈 1만 7000원(대인 왕복 기준)
문의 www.busanaircruise.co.kr
* 9월 28일~10월 31일 1시간 연장 운행

KTX 승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

대상 행사 기간 내 열차 이용객 (탑승권 또는 영수증 제시 필수)
혜택 동반 1인까지 송도해상케이블카 입장권 2000원 할인
기간 9월 28일~10월 31일

2000원 할인



what's up



• FESTIVAL •

2023 웰컴대학로

● 서울 ● 10.14~28

한국 공연 예술의 메카, 대학로의 에너지를 만끽한다. 페스티벌 기간 중 대학로 공연장에서 만나는 공연은 <#정답을작성해주세요> <22년 2개월>을 포함해 총 34편으로, 지난해보다 17편을 추가해 대폭 늘었다. 공연을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K-스테이지'도 진행한다.

장소 서울 대학로 일원
문의 02-6925-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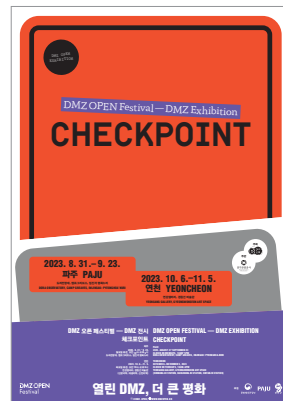
• EXHIBIT •

<DMZ: CHECKPOINT>

● 연천 ● 10.06~11.05

한국 남북 분단과 DMZ 접경 지역을 예술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전시로, 파주에서 진행한 1부에 이어 연천에서 2부의 막을 올린다. 27명의 작가가 설치·회화·영상 등 60여 점의 작품을 가지고 참여하며, 장소는 연강갤러리와 경원선 미술관을 활용한다. 남북 분단으로 생겨난 곳에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다.

장소 경기도 연천 연강갤러리 외
문의 @dmz_open



• FESTIVAL •

서울스��이지11

● 서울 ● 10.05

깊어 가는 가을, 도심에서 예술 콘서트를 감상한다.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정오와 오후 2시에 서울 곳곳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10월에 구성된 일곱 개의 공연은 첼리스트 양성원과 피아니스트 홍소유의 클래식 연주 등으로 다채롭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니 음악과 계절의 낭만을 즐기자.

장소 서울예술교육센터 외
문의 02-758-2026



• SHOW •

<클라우스 메켈레 & 오슬로 필하모닉>

● 고양 ● 10.28

26세에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악단을 지휘한 젊은 거장 클라우스 메켈레가 바이올리니스트 재닌 안센, 오슬로 필하모닉과 함께 장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준다. 핀란드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곡을 핀란드 지휘자의 해석으로 듣는 특별한 기회다.

장소 경기도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문의 1577-7766



• FESTIVAL •

Diaf 2023

● 대구 ● 11.03~05

세계 미술의 성장세와 흐름을 대구에서 한눈에 파악한다. 한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러시아 여섯 개 나라에서 총 116개 갤러리가 참여하는 대규모 아트 페어다. 무려 1000여 명의 작가가 내놓은 회화·조각·판화·영상·설치 등 작품 4500여 점과 만난다.

장소 대구 엑스코
문의 053-421-4774

POHANG STEEL ART FESTIVAL

2023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2023 10.7 - 10.21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
구. 수협냉동창고 복합문화공간



주최·주관 : pohang · phc 포항문화재단

후원 :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MUSIC FESTIVAL

A NEW WORLD? THE NEW WORLD!

POHANG 2023

신세계?신세계!
2023.11.3.~11.9.
포항문화예술회관 외 포항시 일원

포항음악제

예술감독 박유신

프로모션

Diاف

2023

DAEGU international art fair



Diاف 2023이 열리는 11월, 대구가 예술로 물든다.

Diاف(Daegu International Art Fair, 디아프)가 열리는 11월, 대구는 그야말로 미술 집약한 도시가 될 예정이다. 다채로운 작품과 풍성한 프로그램이 미술을 사랑하는 이들을 불러 모은다.

대구와 미술

1974년, 대구현대미술제가 막을 올렸다. 현대미술을 향한 갈망이 담긴 전국 규모의 미술 축제였다. 실험과 도전이 난무한 이 축제는 1979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열렸는데, 이 시기 대구는 명실공히 '한국 현대미술 발상지'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때마침 섬유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문화 자본을 증식시켰고, 미술 작품 수집가 집단이 형성했다. 도시에 미술 애호 분위기가 일자 화랑과 아트 센터, 전시 공간이 속속 들어섰다. 미술대학이 증설되고 미술 인구가 팽창했으며, 작가 층도 탄탄해졌다. 대구 출신의 여러 미술 거장이 탄생한 배경이다.

대한민국 대표 아트 페어, Diاف

'대구아트페어'로 출발한 Diاف는 2008년 첫선을 보인 이후 한국 미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주목받았다. 이후 한국 대표 아트 페어로 성장했고, 지난해 현재 이름인 Diاف(Daegu International Art Fair)로 변화를 줬다. 국내를 넘어 국제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Diاف가 이름처럼 외연을 확장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한편, 참가 화랑과 출판작 수준을 높여 프리미엄 아트 페어로 도약한다. 도슨트 투어도 마련해 관람객의 미술 작품 이해를 돕는다.

11월 2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Diاف 2023 본전시는 3일부터 5일까지 EXCO 동관 4·5·6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아트 페어에는 한국·일본·러시아·영국·독일·프랑스 6개국의 116개 갤러리가 참여하며, 작가 1000여 명이 4500여 점을 준비했다. 회화, 조각, 판화, 영상, 설치 등 분야도 다채롭다. 블루칩 작가로 분류되는 이진용, 이우환, 박서보, 이배, 곽훈, 백남준, 김태호, 최병소, 김종학, 남춘모, 김창열, 전광영, 이기성, 윤병로, 박석원, 윤병로, 이명미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참여하고 해외 작가로는 앤디 워홀, 조지 콘도, 조엘 매슬러, 애니쉬 쿠퍼어, 야요이 쿠사마, 로즈 와일리, 알렉스 카츠, 제프 쿤스, 매튜 스톤, 로버트 인디애나, 무라카미 다카시, 바이런 킴, 나라 요시토모, 하비에르 카예하, 데이비드 호크니, 장 미셸 오트니엘, 줄리안 오피, 루이스 부르조아, 캐서린 번하드, 캐서린 안홀트, 조르디 핀토 등의 작품이 출품된다. 최근 열린 Kia에서 주목받은 이상용, 채성필, 최형길, 김선우, 한충석, 감만지, 진영, 윤필현, 김우진, 김민승, 이상수, 이상용 등의 신진 작가부터 중견 작가까지 인기 작가들도 대거 참여한다.



최형길, Babel, 2023.

Diاف 2023 특별전

<대구현대미술제, 도전과 저항의 역사>

올해 Diاف는 의미 있는 특별전을 준비했다. 40여 년 전 대구를 미술 도시로 주목받게 한 대구현대미술제의 의의를 되살리고, 그 역할을 상기하는 아카이브 전시 <대구현대미술제, 도전과 저항의 역사>다. 당시 미술 축제에 참여한 젊은 작가들은 개성 있는 작품으로 기성 미술계에 도전하는 동시에, 지역 미술의 자생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는 1970년대의 경직된 정치·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획기적 시도였기에 파급력이 대단했다. 1974년 대구현대미술제가 첫발을 뚫은 이듬해인 1975년부터 서울·부산·광주·전주·강원도 등에서 현대미술제가 잇달아 열리기도 했다. 윤진섭 평론가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대구 현대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 보고 지역 미술이 미래에까지 지속될 염원한다. 특별전에는 이강소, 이진용, 이명미, 최병소 등 작가 10여 명의 작품을 전시한다.



야요이 쿠사마, Pumpkin(2), 1990.



이상용, Fate, 2023.



박진성, My Story, 2022.



쿤, Collector 66, 2023.



이명미, Rui, 2022.



제프 쿤스, Balloon Dog(Blue), 2021.

+ Diاف 2023 x 대구시티투어

동대구역에서 EXCO에 도착해 Diاف를 관람하고, 차례로 대구미술관, 수성못을 투어하는 대구시티투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미술관에서는 미니멀리즘 사조의 대표 조각가 칼 안드레(Carl Andre)의 개인전을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다.

+ Diاف 2023

총 116개 갤러리가 참여한 'Diاف 2023'은 작가 1000여 명의 작품 4500점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특별전을 비롯해 강연과 아트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움이 배가된다. 도슨트 투어를 이용하면 아는 만큼 더 잘 볼 수 있다.

기간 11월 3일~5일(개막식 11월 2일)
장소 대구시 북구 엑스코로 10 EXCO
문의 +82 53 421 4774

미술 도시 대구의 풍성한 아트 페어

한국 현대미술의 중심지 대구에서 11월 Diاف가 열린다. 한국을 대표하는 아트 페어다.

Diاف 홈페이지



Diاف 인스타그램





음악의 신세계? 포항음악제 신세계!

문화 도시로 거듭난 경북 포항이 새로운 음악의 문을 연다. 국내외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이끄는 무대다.

말이나 몸짓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음악이 대신할 때가 있다.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노래를 계기로 하나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음악이 지닌 힘은 강력하고 매력적이다. 다가오는 11월, 모두를 매혹적인 선율로 유혹하는 실내악 축제 '포항음악제'가 경북 포항에서 펼쳐진다.

멈추지 않는 실내악의 향연

'신세계? 신세계!'를 주제로 11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열리는 이번 음악제는 '2021 포항음악제: 기억의 시작'과 '2022 포항음악제: 운명, 마주하다'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대규모 실내악 페스티벌이다.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가 대거 참여해 클래식 음악 팬의 기대와 관심을 모은다.

포항 출신 첼리스트 박유신이 예술감독으로 참여하며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피아니스트 손민수·김태형·문지영, 소프라노 박혜상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연주자와 바이올리니스트 토비아스 펠트만·알렉산드라 코누노바, 첼리스트 엔스 페터 마인츠·톨레리프 테덴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가 대거 출연한다. 우선 개막 공연은 포항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지휘자 없이 모두 일어서서 연주하는, 포항음악제만의 독특한 스탠딩 형식 무대로 선

보인다. 이후 총 일곱 개의 메인 공연을 비롯해 '포커스 스테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올해 음악제의 백미는 '아티스트 포항'이다. 소프라노 김예은, 테너 이규철, 피아니스트 박영성·이현주 등 포항 출신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마지막 날을 장식할 폐막 공연에는 여느 공연과는 다르게 안무가 최수진을 포함한 여덟 명의 무용수가 등장해 연주자들과 합을 맞추는 환상적인 무대를 예고했다. 누구보다 음악에 진심인 문화 도시의 면모가 2023 포항음악제에서 빛을 발한다. 선선한 가을, 포항으로 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문의 포항문화재단 054-289-7830

예매 티켓링크 1588-7890

기간 11월 3일~9일

장소 포항문화예술회관 일원

예술감독 첼리스트 박유신



MUSIC FESTIVAL POHANG 2023

2023 포항음악제 메인 공연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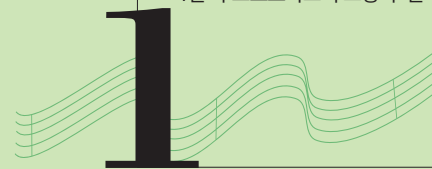
#

OPENING - FROM THE NEW WORLD

개막 공연-신세계로부터

11.03(금) 오후 7:30

베토벤은 청각을 잃고 '피아노협주곡 제4번'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위치를 연주자에서 작곡가로 바꾸었다. 드보르자크는 조국인 체코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경제적 이유로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낯선 환경에서 맞닥뜨리는 것들은 삶에 새로운 동력이 되고, 예술의 참신한 소재로 쓰이기도 한다. 베토벤은 전업 작곡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드보르자크는 걸작을 탄생시킨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언제나 두렵지만 우리를 황홀한 신세계로 이끈다. 그들의 이야기를 포함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제4번'과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로 들려준다.



THE COLORFUL

색채

11.05(일) 오후 7:30

연주자는 악기로 재능을 뽐내고, 작곡가는 연주자와 악기, 악보 등 모든 요소를 조합해 능력을 보여 준다. 모차르트와 말러, 레스피기, 드보르자크가 비슷한 현악 편성에 변화와 특색을 더하고,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풍미한 형식을 첨가해 완전히 다른 음색을 만들어 냈다는 음악사적 공통점을 색색의 테마로 표현한다.



3



CUARTETO CASALS

카잘스 콰르텟

11.06(월) 오후 7:30

1997년, 첼로의 성자 파블로 카잘스의 이름을 걸고 네 사람이 모였다. 리더 역할은 넷이 분담하고,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을 때때로 바꾸며 민주적 방식으로 팀을 운영한다. 서로에 대한 따뜻한 존중이 그들의 연주에 여과 없이 드러난다. 루이지 보케리니의 '현악사중주' 등을 선보인다.



4

JAZZ? CLASSIC!

재즈? 클래식!

11.04(토) 오후 7:30

다리우스 미요와 니콜라이 카푸스틴, 프랑시스 풀랑크와 벨러 버르토크 등 평상시에 쉬이 듣기 힘든 작곡가의 곡을 한데 모아 펼친다. 범주를 넘나들며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이들의 작품은 클라리넷과 플루트 등 악기로 연주되면서도 우리가 아는 클래식 음악과는 다른, 마치 재즈 같은 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을 것이다.

2



SCHUBERT THE FANTAST

꿈꾸는 이, 슈베르트

11.07(화) 오후 7:30

서른 살이 되어서야 피아노를 살 수 있었을 정도로 가난하고 병약했던 프란츠 슈베르트. 음악을 향한 그의 꿈은 1000여 곡의 작품으로 남았다. 요절한 탓에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곡, 완성했으나 출판하지 못한 곡도 있다. 그럼에도 그의 꿈은 인생보다 길었다. '야상곡' '강위에서' 등으로 슈베르트의 삶을 되돌아본다.



5

KYUNGWHA CHUNG &

TAEHYUNG KIM

정경화 & 김태형

11.08(수) 오후 7:30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호흡을 맞춘다. 흔히 바이올린 소나타는 바이올린 독주에 피아노 반주를 더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많은 작곡가가 두 악기의 비중을 동등하게 하려고 애썼다. 브람스가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곡'이라고 강조한 '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등을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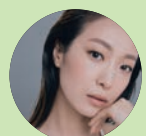
6

FINALE - THE RITE OF DANCE

폐막 공연-춤의 제전

11.09(목) 오후 7:30

생을 전부 바쳐 완성한 대작만이 뜻깊은 것은 아니다. 새로운 형식을 만드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물으면 그것 역시 긍정의 대답을 내놓기 어렵다. 열여섯이었던 소년, 펠릭스 멘델스존이 작곡한 '현악팔중주'와 학생 신분이던 볼테마르 바르기에이 학기 중에 과제로 쓴 작품이 춤과 어울려 관객을 만난다. 무용가 최수진을 포함해 여덟 명의 무용수는 연주자와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악보를 해석한다. 몸으로 표현하는 춤과 소리로 뜻을 전달하는 음악이 조화를 이루며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출연자들은 포항음악제가 끝난 후 관객의 마음에 새로운 예술 세계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연에 임한다.



7

철이 빛어낸 예술, 2023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 산업 발전의 산물인 철이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12회를 맞은 2023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이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경북 포항에서 펼쳐진다.



들어 전시한다. '스틸 투게더 2'는 윤민희 작가가 제작한 흑등고래 모양 구조물에 시민들이 장식을 덧붙여 나가며 완성한다. '똑딱똑딱 철의 오케스트라'에서 음악가와 협주해 색다른 스틸 아트를 즐기고, '스틸 공작소'로 향해 10여 개의 체험 부스를 방문한다.

페스티벌을 더욱 다채롭게, 아트 투어

드넓은 영일대해수욕장을 배경으로 15일간 진행되는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의 작품을 폭넓게 이해하고 싶다면 총 세 가지로 구성된 아트 투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시민 도슨트가 축제장 내 주요 스틸 아트를 설명하는 '도슨트 투어'를 듣거나 '자율 스탬프 투어' 용지를 수령한 뒤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한다. '나이트 투어'는 스틸 아트의 진면목을 체험하는 기회다. 빛나는 전구 옷을 입고 작품 옆에 서서 불빛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스틸 아트를 지그시 바라본다. 밤에만 마주할 수 있는 작품의 옆모습이다. 스틸 아트를 직접 안아 보며 작품과 교감하기도 한다. 올가를 포항에서 예술이 된 철의 따뜻한 매력에 빠져든다.

Steel Wave, 포항의 꿈

철은 곧 희망이요, 희망은 철이었다. 1970년 제철소가 들어선 이후 철강은 곧 포항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철강업에 종사하며 생활을 꾸렸고, 도시는 철강 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했다. 포항은 2012년부터 해마다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해 도시에 희망과 예술을 함께 융해한다. 이 축제의 열두 번째 슬로건은 'Steel Wave, 포항의 꿈'. 산업 자원인 철과 포항 영일만의 힘찬 파도를 합성해 전국 축제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향해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은 올해를 기점으로 축제를 국제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시작 가운데 해외 작가의 작품을 포함했다.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 시민이 이끄는 축제

포항의 스틸 아트는 시민의 일상과 함께한다. 예술 작품을 미술관이라는 한정된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시내 곳곳에 스틸 아트 작품 190여 점을 상설 전시한다. 시민이 직접 SAM(스틸 아트 매니저)을 꾸려 작품을 관리하기도 한다. 축제 기간에는 스틸 아트와 시민이 한층 더 가까워진다. 전시작 가운데 16점이 15개 철강기업체가 출품한 것으로, 포항 철강 노동자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 '스틸 투게더' 작품 2점도 있다. 두 가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스틸 투게더는 작가와 시민이 함께 작품을 완성하는 데 의미를 둔다. '스틸 투게더 1'은 포항의 철과 어울리는 '희망'을 주제로 공모한 사연에 기반해 권용주 작가가 작품을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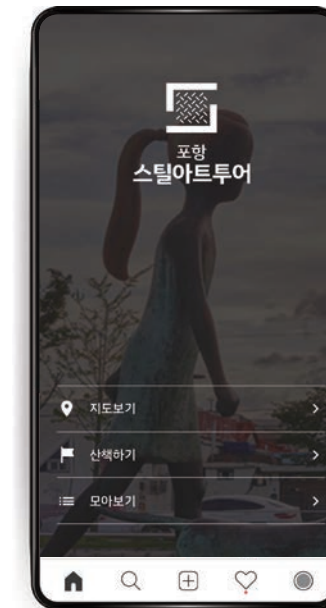
2023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철 예술제로, 올해 12회를 맞았다. 철강 노동자, 시민, 예술인이 참여해 차가운 철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는다. 다양한 스틸 아트를 감상하고 현장 체험 프로그램, 아트 투어, 참여형 작품 제작 프로젝트에 동참해 축제를 만끽한다.

기간 10월 7일~21일

장소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대

문의 054-289-7853~4(포항문화재단 축제운영팀)



포항스틸아트투어 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항스틸아트투어'로 축제를 풍성하게 누린다. '지도 보기'를 눌러 내 주변의 스틸 작품 위치를 확인하고, 취향별 작품 코스를 안내하는 '산책하기'를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App Store



Android Google Play

Seoul and

예술이 그린 섬, 신안

잔잔한 파도 소리가 여행자를 반긴다. 전남 신안 자은도가 품은 예술 이야기를 들으러 남쪽으로 떠났다.



Blue

다리 위로 나아가자
파도 소리가 멀어져 조용하다.
나무 바닥을 밟을 때마다
울리는 발소리,
바닷물 찰방이는 소리가
운치를 더한다.



물 위를 건너서

신안의 1004개 섬을 모두 섭렵하지는 못해도, 자은도에서는 두 다리만으로 다른 섬에 가는 방법이 존재한다. 바로 둔장해변으로 이동해 무한의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조각조각 떨어진 구름이 하나로 뭉치더니 하늘을 자유로이 누빈다.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머물다가도 잠시 눈을 떴면 저만치 한 뼘 떨어져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을 감상하는 동안 기차가 천천히 역으로 들어온다. 이대로 철길 위를 달려서 남쪽을 향해 갈 작정이다. 가을에 더욱 짙어지는 하늘과 똑 닮은, 푸른 바다를 보고 싶어서다.

너그러운 섬, 자은도

기차는 종착역인 전남 목포역에서 승객을 내려 주었다. 여기서부터 자동차로 갈아탄다. 배를 이용하지 않아도 신안까지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된다. 목포와 신안 압해도를 잇는 거대한 압해대교 근처에 다다르자 자동차로 육지와 섬 사이를 건넌다는 게 비로소 실감 난다. 양옆으로 하염없이 펼쳐진 갯벌을 5분가량 보았을까, 금세 압해도에 당도한다. 목적지에 닿으려면 다리 두 개를 더 지나야 한다. 2019년에 개통해 도서 간 접근성을 대폭 높인 천사대교, 자은도와 압태도 사이에 놓인 은암대교를 거쳐 서서히 목적지와 가까워진다.

자은. 서로를 돕고 감싸 주는 너그러운 마음과 착한 인성을 지닌 섬 주민 덕에 예부터 붙은 이름이다. 인심에 자연도 동화된 것인지 섬은 넉넉한 모래사장을 아홉 개나 갖췄다. 동쪽을 제외하고 어딜 가도 청정한 바다와 백사장 나타나니 여행자가 몸과 마음을 쉬어 가기에 맞춤이다. 길이 3.5킬로미터로 자은도의 해변 중 규모가 가장 큰 둔장해변으로 간다. 갯벌 근처에서 노니는 상상을 하던 중, 해변 한쪽의 기다란 구조물이 시야에 들어온다. 바위 섬으로 뻗은 다리다.

다리는 왼쪽에 놓인 또 다른 섬까지 이어진다. 자은도와 구리도, 할미도 세 섬을 잇는 다리이자 섬과 섬의 연속성, 끝없는 발전을 의미하는 설치 작품 '무한의 다리' 시작점에 선다. 신안은 섬을 1004개나 보유했다는 의미로 '천사섬'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여기서 영감을 얻어 길이도 딱 1004미터다. 밀물 때인지 바닷물이 한 겹씩 밀려와 갯벌과 모래를 덮는다. 다리로 나아가자 파도



자은도 둔장해변에 박지·반월도 퍼플교의 명성을 이을 무한의 다리가 놓였다. 길이는 1004미터로, 신안을 이루는 섬 1004개를 상징한다. 스위스 출신 건축가 마리오 보타와 조각가 박은선이 합동으로 작업했다.



소리는 멀어지고, 주변은 물보다 조용하다. 나무 바닥을 밟을 때마다 울리는 발소리, 바닷물이 찰방이는 소리가 운치를 더한다. 물기 어린 바다의 연주를 듣다 구리도와 눈맞춤을 한다. 울퉁불퉁한 바위로 이루어진 섬에는 틈을 비집고 자라난 풀과 소나무가 소복하다. 땅이 아닌 돌덩이 사이에서 빗물을 마셔 가며 뿌리내리고, 짝을 틈을 것들이 기특해 잠시간 기웃거린다. 다시 걸음을 재촉한다. 서쪽에서 여행자를 기다리는 할미도로 건너간다.

애뜻한 기다림, 할미도

구리도의 이웃 섬이 할미도라 불리는 이유는 이곳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다. 옛날 옛적, 자은도에 금실 좋은 노부부가 살았다. 그들은 고기를 잡아다 팔며 생업을 이었다.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선 어떤 날, 운 나쁘게도 풍랑을 만나 그만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애타는 심정으로 외딴섬에 나가 남편을 기다리던 할머니는

아기자기한 수석정원에
감미로운 노래가 흐른다.
바이올린 연주곡과
수석이 빛은 풍경이 어우러져
예술의 향기가 가득 찬다.

수석정원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KTX매거진> * MBC 라디오 <노종훈의 여행의 맛>

전남 신안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종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 10월 7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바다 옆 박물관에서

파도치는 바다를 곁에 두고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누빈다. 신안 1004뮤지엄파크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이다. 10월에는 100+4대의 피아노를 동시에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열린다.

그리움에 돌로 변해 버렸다. 이야기를 뒷받침하듯 할미도 끝자락에는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듯한 할미바위가 서 있다. 언뜻 족두리를 쓴 사람의 뒷모습처럼 생긴 것도 같다. 전망대에 올라가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를 본다. 할미는 조각배를 타고 파도를 헤쳐 바다와 조금이라도 가까운 섬으로 온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사랑하는 이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그 절박한 심정을 상상하자니 가슴 한쪽이 저릿하다. 할미도라는 이름을 애달프게 새긴다.

바다 앞에 꽃피운 예술, 1004뮤지엄파크

찌르르한 마음을 다독이고 섬 서쪽의 양산해변으로 향한다. 미술관과 박물관, 전시관, 연구센터가 모두 밀집한 예술 단지, 1004뮤지엄파크가 다음 목적지다. 50만 제곱미터(약 15만 1000평)의 거대한 부지 구석구석을 살피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난다. 신비로운 돌을 모은 1004섬 수석미술관, 7700여 점의 조개껍데기 표본을 보유한 세계조개박물관, 신안에서만 자라는 식물을 연구하고 전시하는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전시관과 신안새우란전시



관 등이 모였으니 신안의 예술과 자연을 집약한 곳이라 할 만하다.

신안의 자생 식물을 조사하는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전시관 먼저 둘러본다. 신안에는 아직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식물이 많다. 육지와 떨어진 섬으로 이루어진 고장이라 비교적 사람 손길을 타지 않아 원시림이 온전하기 때문이다. 연구센터에서는 신안 자생 식물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거나 우수 종을 인공 배양하는데, 이러한 과정 중 어떤 것은 새로운 종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가거도를 주제로 하는 특별전 <난대원시림의 보고, 가거도>가 열리는 내부로 입장한다. 전시관으로 이어지는 복도에서는 청아한 새소리가 방문자를 반긴다. 벽면은 숲속 사진으로 채웠다. “새소리가 참 좋지요? 직접 녹음한 섬휘파람새의 울음소리, 가거도 원시림 사진으로 섬에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했어요. 자생식물연구센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새소리를 배경으로 해설사가 따스한 인사를 건넨다. 전시관에는 연구센터가 가진 신안 식물 표본 600점과 곤충 표본 1000점 중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신안 자생 식물 표본을 눈여겨본다. 수분을 잃어 바삭 말랐지만 뿌리와 줄기, 잎, 열매가 선명히 드러났다. 옆쪽엔 식물의 푸릇푸릇했던 시절을 담은 세밀화도 놓았다. 새로 발견해 신안의 지명이 붙은 식물도 적지 않다. 신안새우란, 홍도고들빼기, 가거양지꽃... 신기하고도 정겨운 이름에 자꾸만 눈길이 간다.

1004섬 수석미술관으로 가는 길, 아기자기한 수석정원에 감미로운 노래가 흐른다.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수석이 빛은 풍경이 펍 어울려 떠나지 못하고 어슬렁거린다. 신안의 10월은 ‘2023 문화의 날’ 행사로 예술의 향기가 그윽한데, 피아노 104대를 놓고 펼치

1004뮤지엄파크는 양산해변과 맞닿아 있는 복합 문화 단지다. 1004섬 수석미술관과 수석정원을 시작으로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전시관, 신안새우란전시관, 세계조개박물관을 차례로 둘러본다. 건물 밖으로 나와 해변을 걸어도 좋다. 문의 070-4272-5611

Real



신안과 가까운 기차역은 목포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목포역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백길해변으로 가는 동안
해는 잠에 들 준비를 한다.
흩어졌던 구름을 모아
이부자리를 만들고,
느릿느릿 수평선 아래로
떨어진다.



파도가 모이는 해변에서

백길해변에 가기 전, 유각마을 입구에서 파마머리 벽화를 배경으로 인증 사진을 찍는다. 솔바람 산책로를 따라 거닐다가 해가 질 무렵 신안의 낭만적인 석양을 만끽한다.



는 행사의 백미 '100+4 피아노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1004뮤지엄파크에서 개최한다. 수석정원에 흐를 피아노 선율을 상상한다. 그날의 분위기도 지금처럼 다정하고 따스할 것이다. 다음으로 둘러볼 곳에서는 신비로움을 느낀다. 1004섬 수석미술관은 50년 넘도록 돌을 찾고 연구해 온 원수칠 관장이 국내외에서 수집한 수석 225점을 주제별로 나누어 공개한 곳이다.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후 미술관 내부에서 실행하면 산신령이 나타나 작품을 하나하나 설명한다. 일부 작품에 카메라를 비추면 용이 튀어나오고, 폭포도 흐른다. 두꺼비처럼 생긴 거대한 돌, 신기한 무늬가 그려진 문양석, 구멍 뚫린 투우석, 그림을 그린 듯한 수림석 등 자연에서 찾았다고는 믿기지 않는 작품에 탄성이 나온다. 원수칠 관장이 수석 하나를 가리킨다. "이 돌을 보세요. 흰 문양이 꼭 낙지 같지 않나요? 신안 특산물 빨낙지가 생각나 작품 이름을 '신안 빨낙지'라 붙였지요." 누군가에겐 바닥에 널린 돌이지만 원 관장의 손을 거치면 생명을 얻어 재치 넘치는 작품으로 거듭난다. 수석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자 빛이 도는 게, 당장이라도 돌에서 낙지가 튀어나올 것만 같다.



밀고 당기는 바다, 백길해변

자은도 남쪽에 위치한 백길해변으로 달리는 동안 해는 천천히 잠에 들 준비를 한다. 흩어졌던 구름을 모아 이부자리를 만들고, 느릿느릿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중이다. 가는 길에 반가운 장소를 만난다. 나무와 그림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파마머리 벽화다. 신안 출신 작가가 실제 마을에 사는 주민을 모델로 벽에 곱게 그려 놓았다. 암태도의 동백꽃 파마머리 부부 벽화가 인터넷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자 잇따라 유각마을 입구에도 재미난 벽화가 생겨난 것이다. 담벼락 뒤에 자란 나무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자 그림이 생기를 얻는다. 덩달아 할머니의 얼굴도 지는 노을빛에 발그레 물든다.

황혼의 시간에 다다랐을 때 해변과 마주쳤다.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보드라운 모래를 알알이 감각한다. 낮과 밤의 경계가 선연하게 드러나는 곳은 역시 바다가 아닐까. 세상을 야금야금 물들이던 노을이 이내 바닷물에도 스민다. 붉은 파도는 물에서 부서지고 되돌아가길 반복한다. 삶의 여정도 파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힘이 닿는 끝까지 밀고 나갔다가 지쳐서 넘어진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신안의 이야기를 듣는 여행이 될 시간을 주었다. 이제 다시 나아간다. 별이 쏟아질 듯한 하늘에서 은하수가 반짝이고 있었다. 10



Islands Steeped in Art

The gentle sound of waves welcomes travelers. We set off to the south to hear the artistic tales embraced by Jaeundo Island in Shinan, Jeollanam-do Province.

Clouds, fragmented piece by piece, gather into one and freely caress the sky. They seem anchored in that spot, yet if you look away for a moment, they're a palm's length away. As we admire the ever-changing nature, a train enters the station. Our plan is to head south to see the blue sea, which resembles the deepening shades of the sky around this time of year. The train dropped off passengers at the final stop, Mokpo Station in Jeollanam-do Province. From here, we switch to a car. Even without taking a boat, all we need to do is cross

a single bridge to reach Shinan. Crossing Aphaedaegyo Bridge, Cheonsadaegyo Bridge, and Eunamdaegyo Bridge, we gradually draw closer to our destination.

Jaeundo, a Generous Island

The island's name, Jaeundo, has been associated with its residents' generous hearts and kind personalities that help and embrace one another. The island boasts nine spacious



sandy beaches. We head to the largest one, Dunjang Beach, where a bridge heading out to sea catches our attention. I stand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bridge that links Jaeundo Island, Gurido Island, and Halmido Island. Shinan possesses a staggering 1,004 islands, earning it the nickname "Cheonsa Island," and the bridge, inspired by this, spans exactly 1,004 meters. The sound of footsteps echoing on the wooden floor and the gentle lapping of seawater add to the charm. Soon, Gurido Island comes into view. The island, made up of rugged rocks, is adorned with pine trees and grass peeking through the crevices. The neighboring island of Gurido Island is called Halmido Island due to a legend associated with this place. In ancient times, an elderly couple leading a happily married life lived on Jaeundo Island. One day, the husband went fishing as usual, but encountered a storm and tragically couldn't return. The wife, who had headed out to the neighboring island, turned into stone while waiting. As if corroborating the tale, at the edge of Halmido Island, stands Halmibawi Stone. My heart aches as I imagine her desperation and yearning.

Art Blossoming by the Sea

Next up on our itinerary is Yangsan Beach on the western side of the island. At 1004 Islands Museum Park, you will find an art gallery, a museum, an exhibition hall, and a research center. The site encapsulates Shinan's art and nature, with the interesting collection of stones at 1004 Islands Stone Art Museum, over 7,700 shell specimens at the World Shell Museum, and exhibits of plants unique to Shinan at the Shinan Native Plant Research Center & Exhibition Hall. Shinan still has many plants that have not yet been discovered by humans. This is because it is a remote area made up of islands separated from the mainland, and its forests are largely untouched by humans. The research center secures genetic resources of Shinan's native plants and works with artificial cultures of superior species. Some of these processes lead to the recognition of new species. In fact, quite a number of plants have been named after Shinan, such as Shinan shrimp orchid,

Hongdo sow thistle, and Gageo cinquefoil. The charming names get imprinted in my mind.

Baekgil Beach, the Ebbing and Flowing Sea

The sun prepares to go to sleep as we slowly drive to Baekgil Beach, the southern part of Jaeundo Island. The scattered clouds gather to form a comfy blanket, and gradually descend below the horizon, avoiding human eyes. We arrive at the beach around sunset, and walk barefoot to feel the smooth sand grains. The reddish hues now gently tinge the seawater. The crimson waves break on the shore and retreat, repeating the process. Our journey in life is similar to the rhythm of the waves. We push forward with all our might until tiring and falling down, and recharge ourselves by taking a break. This trip to Shinan was that much-needed break, giving us time to pause and reflect. 📖





신안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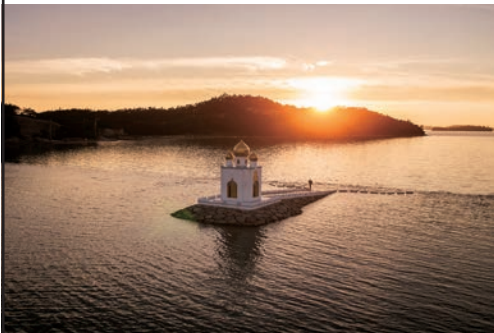


즐길 거리



100+4 피아노 오케스트라 콘서트 신안 자은도에서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가 10월 20일부터 3일간 성대하게 열린다. 무대는 자은도 안 1004뮤지엄파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신안군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섬, 대한민국 문화다양성의 보고: 1004섬 예술로 날다'를 주제로 한다. 섬마을의 생태와 다양성, 문화를 녹여 낸 행사 중 하이라이트는 단연 100+4대의 피아노를 놓고 진행하는 피아노 오케스트라 콘서트다. '피아노의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임동창이 총감독을 맡았다.

문의 070-4272-5611



기점·소악도 마음이 답답하거나 슬픔으로 괴로운 이, 사색하고 싶은 이에게 추천하는 일명 순례자의 섬이다. 신안군 증도면에 자리한 두 섬에는 '섬티아고' 순례길이 놓였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이름을 착안한 곳으로, 사색하고 소요하기에 알맞다. 배를 타고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 아래를 지나 40분 정도 이동해 소악도에 도착한다. 여기서부터 열두 개의 작은 예배당을 찾는 여정을 시작한다. 바다와 어우러진 예배당을 차례차례 방문하다 보면 12킬로미터가 금방이다. 전기자전거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의 061-240-8976

먹거리



자은신안빨낙지 자은도 남서쪽에 펼쳐진 드넓은 갯벌에서 빨낙지를 직접 잡아 올린다. 싱싱한 낙지를 바로 가게로 가져와 손질한 뒤 손님상에 내놓으니, 신선함은 두말할 것 없다. 낙지연포탕, 낙지호롱, 낙지볶음, 낙지비빔밥, 낙지제육 등 낙지가 들어간 모든 메뉴를 구비했다. 쌀쌀한 계절에는 국물 요리인 낙지연포탕이 베스트셀러다. 낙지와 무, 파, 당근 등 채소만 넣고 끓여 깔끔한 국물을 완성했다. 아삭아삭한 낙지를 간장에 콕 찍어 먹고, 시원한 국물을 들이켈다. 몸 곳곳에 활기가 돌아 속이 뜨끈뜨끈해진다.

문의 061-275-9332



신안 새우젓 청정한 바다 덕분에 수산물의 질이 뛰어난 신안은 왕새우, 우럭, 볼락 등 자랑할 만한 자원이 많다. 새우젓은 그중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는 특산물이다. 바닷속에 모래가 많은 환경으로, 새우가 살기 매우 적합해서다. 게르마늄이 풍부한 신안 천일염이 들어가 감칠맛이 깊고 육질이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5월에 담근 '오젓', 새우 산란기인 6월에 담아 실한 '육젓', 가을 새우로 담근 '추젓' 등 종류가 다양해 용도에 따라 골라 구입한다. 10월에는 지도읍 절갈타운에서 섬 새우젓 축제가 열리니 다가오는 김장철을 대비할 겸 축제 현장으로 떠날 맛있는 계획을 세워도 좋겠다.

2024년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소득 가구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비용 지원

제도 시행 24년 만에 최대 인상 - 약 10만 명 신규 혜택



2년 연속

하나,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6.09% 올리고,

2023~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2023년	2024년	가구	2023년	2024년
1인	207만 8천원	222만 8천원	4인	540만 1천원	573만원
2인	345만 6천원	368만 3천원	5인	633만 1천원	669만 6천원
3인	443만 5천원	471만 5천원	6인	722만 8천원	761만 8천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 70여 개 정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

7년 만에

둘, 생계급여 지원기준 완화로 한 번 더 올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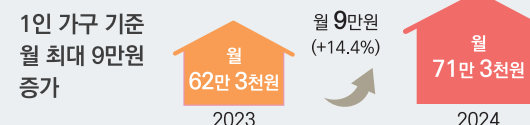
기준 중위소득



2023~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가구	2023년	2024년	가구	2023년	2024년
1인	62만 3천원	71만 3천원	4인	162만 1천원	183만 4천원
2인	103만 7천원	117만 8천원	5인	189만 9천원	214만 3천원
3인	133만원	150만 9천원	6인	216만 8천원	243만 8천원

셋, 내년 생계비 지원은 4인가구 기준 월 21만 3천 원이 많아집니다.



* 실제 지원금액은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고창읍성

고아한 멋과 창창한 기상

전북 고창의 옛 이름은 모양부리다. 모양부리를 수호하던 성곽인 모양성의 오늘날 이름은 고창읍성이다.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제50회 모양성제의 성대한 막이 오른다.

윤삼월 하고도 초엿새. 흰 옷을 차려입고 머리에 돌을 인 여인네 한 무리가 열을 맞추어 성곽을 거닌다. 이 신묘하고 아름다운 풍습을 일컬어 성밧기 또는 답성놀이라 했다. 성곽을 세 바퀴 돌고 나면 극락왕생한다는 전설이 수고로운 걸음을 떼게 했을 터. 북망산 저승문이 열린다는 윤달, 성 안팎은 생과사, 성과 속이 혼재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가을 한낮, 답성놀이 하던 옛 여인의 마음으로 성문 앞에 섰다. 투명한 햇살이 석축에 내려앉아 눈부시게 빛났고, 문루 주위에 늘어진 깃발은 바람결에 춤추듯 나부꼈다. 조선 단종이 즉위한 1453년에 축조한 고창읍성은 오랜 세월 답성놀이 전통을 이어 온 역사적 장소다. 고창읍성만큼 모양성이라는 이름도 널리 사용한다. 이는 백제 때 고창의 지명인 '모양부리'에서 온 명칭으로 '보리 모(牟)' 자에 '별 양(陽)' 자를 쓴다. 풀이하면 '보리가 자라고 별이 잘 드는 고을'. 문득 연둑빛으로 일렁이는 청보리밭 풍광이 스쳤다 사라진다.



모양성제 답성놀이, 걸음걸음에 깃든 진심

고창읍성의 성밧기 놀이는 정유재란 이후 스러진 성벽을 개축하고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 놀이에 참여한 이들은 이승에서나마 극락을 체험하려는 간절한 열망에 달뻗었다. 이 순간만은 성안이 곧 극락정토요, 입구인 북문과 공북루는 하늘로 올라서는 관문이나 다름없었다. 오늘날 고창군에서는 음력 9월 9일 중앙절을 고창 군민의 날로 정하고, 성곽에 깃든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계승하는 모양성제를 개최한다. 마침 2023년은 제50회 모양성제가 열리는 해이자 고창읍성이 축성 570주년을 맞는 해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고창읍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황홀한 모양성제를 펼칠 것이다.

고창읍성의 품격은 장쾌하고 단단한 자태에 있다. 당대 최신 병법과 축성 기술을 적용해 동쪽, 서쪽, 북쪽에 세 문과 여섯 개 치성을 쌓았는데, 성문은 적을 최전선에서 저지하는 견고한 웅성으로 둘러싸여 있다. 둘레 1684미터, 면적 16만여 제곱미터(약 5만 평) 규모의 성을 완성하는 데에는 3년이 걸렸다. 조선 시대



고창과 가까운 역은 정읍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정읍역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가을 한낮, 답성놀이 하던 옛 여인의 마음으로 성문 앞에 선다. 투명한 햇살이 석축에 내려앉아 눈부시게 빛나고, 문루 주위에 늘어선 깃발은 바람결에 춤추듯 나부낀다.



고창읍성 일원에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50회 고창 모양성제가 열린다. 답성놀이와 강강술래, 성황제와 농악 한마당에 이어 흥미진진한 공연도 마련한다. 포르테나, SG워너비, 손태진, 다이나믹 듀오, 크라이닉, 심수봉, 설운도 등 출연진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무대를 펼친다. 문의 063-560-2949(고창 모양성제)

호남 내륙을 수호한 전초기지이니만큼 전라우도 고창, 무장, 흥덕, 군산 등지와 전라좌도인 진안, 임실, 순창 등 총 19개 군현에서 온 인부들이 힘을 모았다. 성벽 한쪽에 작업자의 출신과 축성 연도, 감독자 이름 등을 각자(刻字)해 놓아 이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웅성에 적힌 글씨 중엔 당시 전라우도에 속한 지역인 '濟州(제주)'도 있다.

성벽은 큰 돌 위에 작은 돌을 괴어 축조했다. 얽어 놓은 돌이 겨우내 얼었다가 날이 풀려서 갑자기 허물어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석성 윗부분을 지르밟아 다지는 작업이 필요했다. 앞서 이야기한 답성놀이가 바로 여기서 파생한 습속이다. 마을 여인들은 걸음에 더 큰 무게를 싣고자 기꺼이 돌을 들고 나섰다. 녹록지 않은 일이었으므로 기운을 북돋우는 메시지가 필요했다. 한 바퀴 돌면 다리 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는 이야기가 이 시기에 널리 퍼져 나갔을 것이다.



슬슬 너머 대숲, 성안에 고인 시간

북문과 동문과 서문, 그 사이사이에 자리한 여섯 개 치성을 차례로 거닐었다. 쉬엄쉬엄 걸었는데도 눈 깜짝할 새 다시 북문. 순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남짓이다. 그새 다리 병이 나은 걸까, 발끝이 가뿐하고 온몸에 활기가 돈다.

마냥 성곽 길만 따라가기엔 가을별이 제법 뜨거워서, 성문과 치성을 넘나들며 다시 한번 성 안팎을 누비기로 했다. 동북치에서 동문까지 이어진 성곽에서서 방장산 자락을 마주하고, 동치와 동남치 사이 구간에선 노동저수지의 호젓한 풍경과 나란히 걷다가, 동남치에서 객사로 난 오솔길에 접어들어 성황사와 맹종죽림에 다다른 코스다.

성 밖에선 이렇게나 드넓은 대숲이 있으리라곤 감히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1938년 청월선사가 성안에 보안사라는 절을 세우고 주변에 맹종죽을 심기 시작한 게 지금에 이른다. 그야말로 우후죽순. 하늘을 다가릴 만큼 높다랗게 자라난 대나무가 무성한 숲을 이룬다. 운치가 남다른 까닭에 <왕의 남자> <최종병기 활> <구름을 버서난 달처럼> <군주> 등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무대로 등장하기도 했다. 수목담채화처럼 청신한 대숲에 안겨 잠시나마 초현실적인 평화를 누린다. 미풍에 댓잎이 흔들리는 소리, 물기 어린 숲 내음, 부드러운 흙의 온기에 속세의 시름마저 잊는다.

동헌과 내아, 장청 뒤꼍으로 이어지는 소나무 숲길도 고아하기가 그지없다. 늘어선 소나무가 저마다





단청이 고운 객사와 풍화루부터
북문 웅성을 돌아 나오는 길목에 자리한
비석군까지. 성 안팎에 고창의 역사가
스미지 않은 곳이 없다.



판소리 여섯 마당을 정리하고 명창 진채선을 발굴한, 고창을 대표하는 예술가 동리 신재효를 기리는 공간이 고창읍성 입구에 모여 있다. 고창판소리박물관과 신재효 고택, 신재효판소리공원, 동리국악당과 판소리전수관 등을 두루 살펴본다. 문의 063-560-8061(고창판소리박물관)

수려하지만, 용틀임하듯 가지를 펼친 두 그루는 각
별히 아름다워 할머니, 할아버지 나무라고 부른다.
두 어르신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생각한다. 600년
동안 한곳에 뿌리내리고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저 버티고 서 있기도 쉽지 않은 세상, 우리를 굽어
살피는 모든 나무 어르신께 깊은 존경을 표한다.

성을 나서며

소나무에서 단풍나무, 다시 동백나무로 바뀌는 가로
수를 구경하느라 발바닥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걸었다. 단청이 고운 객사와 풍화루, 한때 고
창여자고등학교가 자리했던 작청 옆 빈터, 고을을
평안하게 다스리라는 뜻으로 현판에 '평근당'이란 글
자를 써 넣은 동헌, 3·1 만세 운동 터와 흥선대원군
척화비, 북문 웅성을 돌아 나오는 길목에 자리한 비
석군까지. 성 안팎으로 고창의 역사가 스미지 않은
곳이 없었다.

고창읍성에 머문 물리적 시간은 반나절도 채 안 되
지만, 보고 듣고 만진 시간은 천년에 가까울 것이다.
밀도 높은 시간 여행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해는 중
천에 걸렸으니, 다시 새로운 여정을 계획해 보려 한
다. 우선 선운사 꽃무릇을 보고, 저녁엔 풍천장어에
복분자주 한잔 기울이며 오늘을 곱씹어야겠다. 마침
불어오는 바람이 달콤하다. **K**

고석정 꽃밭_철원

푸른 하늘 아래 빨갛고 노란 촛불맨드라미가 펼쳐진다. 고석정 꽃밭은 불과 9년 전만 해도 포성이 울리는 군사 훈련지였으나 지금은 24만 제곱미터(약 7만 2600평) 공간을 꽃이 메운다. 가을 개장은 10월 31일까지이며, 밤 9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낮도 아름답지만, 가을밤의 꽃밭은 더욱 낭만적이다.
주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1769
문의 033-455-7072



대명유수지_대구

침수 피해를 막고자 유수·저류 시설을 만들고 20여 년이 흐르자 멸종 위기 2급인 맹꽁이가 돌아왔다. 유수지를 포함한 습지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로 거듭났다. 이맘때면 26만 제곱미터(약 7만 8000평) 규모의 물억새 군락이 장관이다. 은빛 물결 속에서 눈부신 가을을 만끽한다.
주소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816
문의 053-667-2195



가을꽃 속 인생 사진 명소

어여쁜 꽃이 눈을 즐겁게 하는 계절.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사진을 찍으러 떠난다.



드림파크 야생화단지_인천

속근해바라기, 국화가 여행자를 반긴다. 이토록 아름다운 야생화 단지가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2004년 녹지 공간을 조성했고, 2019년부터 일반에 공개했다. 야생화를 감상한 뒤 테마식물·습지생태지구에도 들른다. 반려견 놀이터가 있어 강아지도 마음껏 뛰놀다.
주소 인천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
문의 032-560-9940



미르섬_공주

공산성 앞을 흐르는 금강의 작은 섬이다. 용의 옛말을 따다 이름 붙인 미르섬은 2011년 본격적으로 꽃을 심었는데, 현재는 섬에서 꽃 단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4만 제곱미터(약 1만 2100평)에 이른다. 산책로를 따라 핀 가을꽃을 눈에 담는다. 10월 9일까지 열리는 대백제전에 맞춰 방문해도 좋겠다.
주소 충남 공주시 금벽로 368
문의 041-840-8558



publicdesign.kr/festival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3
모두를 위한 디자인 2023. 10. 20.-29.

Public Design Festival 2023
F1963, 부산광역시 및 전국 공공디자인 거점

공공디자인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후원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F1963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부산유라시아플랫폼
Busan Eurasia Platform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Busan Creative Economy Innovation Center

KORAIL
부산경남본부

삼다수
SAMHWA

HYUNDAI

ASO
Urban Sketchers Guild

미디어 후원
디자인
DESIGN



아세안으로 떠나는, 나만의 색다른 여행

아세안 10개국 지역관광지 50선

팬데믹 이후,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발굴하려는 여행자가 부쩍 늘었다. 한-아세안센터가 추천하는 아세안 10개국 50곳의 매력적인 여행지로 떠나 볼 때다.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하자 수많은 여행자가 기다렸다는 듯 공항으로 쏟아져 나왔다. 팬데믹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랜드마크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관광이 아닌, 나만의 취향을 담아 특별한 여정을 계획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사실. 활기를 되찾은 여행 산업계는 변화한 흐름에 발맞추어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 지역민의 삶과 문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여행지와 여행법을 제안한다. 한-아세안센터는 최근 2023 한-아세안 관광 세미나를 개최하고 꼭 가 봐야 할 아세안 지역관광지 50곳을 소개했다. 색다른 경험, 충분한 시간을 계획하는 여행자에게 아세안의 다채로운 50곳 여행지, 50가지 모험을 제안한다.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 간 경제, 사회, 문화 분야 교류 확대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9년 3월 13일 설립된 국제기구다.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10개국이다.

한-아세안센터 www.aseankorea.org/main 아세안여행 www.aseankorea.org/travel



Brunei

브루나이

자연의 품에 머물며 야생을 관찰하는 시간이다. 종다양성 투어를 진행하는 [1]울루툼 부롱 국립공원(Ulu Temburong National Park), 맹그로브 숲에 파묻힌 친환경 숙소 [2]더 아보데 리조트 앤 스파(The Abode Resort and Spa), 지역의 전통문화·풍속을 배우고 체험하는 [3]숨빌링 에코 빌리지(Sumbiling Eco-village)·[4]라민 와리산(Lamin Warisan)·[5]에코 포니 가든(Eco Ponies Garden)을 느긋하게 둘러본다.



Philippines

필리핀

지금 세부로 가야 할 다섯 가지 이유를 펼친다. [31]오슬롭(Oslob)에선 고래상어, [32]모알보알(Moalboal)에선 정어리 떼, [33]말라파스쿠아섬(Malapascua Island)에서는 진환도상어와 헤엄치는 황홀한 기회를 얻는다. 유려한 폭포도 손에 다 꼽기 어려울 만큼 많은데, 그중 [34]알레그리아-바디안(Alegria-Badian) 마을의 폭포에서는 캐니어링을, [35]삼보안 폭포(Samboan Waterfalls)에서는 수영과 하이킹을 즐긴다.



Malaysia

말레이시아

60여 곳의 에코 투어리즘 구역 중 다섯 곳을 엄선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21]랑카위 지질공원(Langkawi Geopark), 신비로운 카르스트 지형을 거느린 [22]구농 물루 국립공원(Gunung Mulu National Park), 풍부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23]케니르 호수(Kenyir Lake), 열대의 생명력을 뿜어 내는 [24]렝공 계곡(Lenggong Valley)과 [25]해비타트 페낭 힐(The Habitat Penang Hill)로 떠나 볼 때다.



Myanmar

미얀마

유구한 역사를 지닌 [26]베익따노 고대 도시(Beikthano Ancient City)에서 불교 유적을 감상하고, [27]응야빨리(Ngapali) 해변에서 다채로운 액티비티에 도전한다. 미지의 섬 [28]매익 다도해(Myeik Archipelago)에서 고립감을 음미하거나, 거울 같은 [29]인레 호수(Inle Lake)의 풍광을 응시해도 좋다. 까친주에서 지역 기반 투어를 운영하는 [30]인더지 CBT 까친마을(Indawgyi CBT Villages in Kachin State)도 빼놓을 수 없다.

MEET THE LOCAL!



Cambodia

캄보디아

풍부한 문화와 자연을 토대로 지역 기반 에코 투어리즘을 독려한다. 배를 타고 강을 유람하는 [6]치팟(Chi Phat), 무성한 녹음에 안긴 [7]스똥 아렝(Steung Areng), 들에 누워 은하수를 마주하는 캠퍼들의 성지 [8]프놈 크녕 프사(Phnom Khnong Phsar), 하이킹과 라이딩과 농가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9]참벅(Chambok), 낚싯대를 드리우기 좋은 [10]트라베앙 성개(Trapeang Sangkae)가 당신을 기다린다.



Singapore

싱가포르

이 도시의 허파, [36]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와 [37]센토사 아일랜드(Sentosa Island)를 보았다면, 이제는 색다른 여행지를 살필 때다. [38]만다이 야생동물 보호구역(Mandai Wildlife Reserve)에서 사파리를 즐기고, 호젓한 섬 [39]풀라우 우빈(Pulau Ubin)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린다. 도시의 녹지를 잇는 [40]파크 커넥터 네트워크(The Park Connector Network)의 돌레길도 매력적이다.



Indonesia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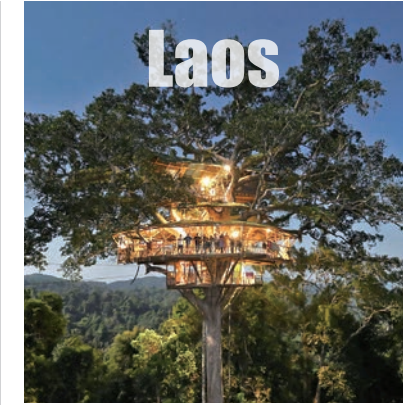
독특한 지형과 풍습을 간직한 마을에서 주민들과 어울리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고깔처럼 생긴 전통 가옥에서 머무는 [11]와에 레보(Wae Rebo), 스노클링과 아일랜드 호핑을 체험하는 [12]부도(Budo), 널따란 논밭에서 다양한 농법을 익힐 수 있는 [13]뿌존 기둘(Pujon Kidul), 그리고 발리의 종교 문화와 생활 풍속을 경험하는 [14]뽕리뿌란(Penglipuran)과 [15]뽕무뜨란(Pemuteran) 마을을 두루 살핀다.



Thailand

태국

물 맑은 태국에서도 특히 [41]뜨랏(Trat) 지역의 꼬막(Kho Mak)섬은 육지에선 자전거와 툭툭, 바다에선 태양열 보트를 이용할 만큼 저탄소 여행에 진심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대 도시 [42]수코타이(Sukhothai), 전통 세러피의 낙원 [43]치앙마이(Chiang Mai)와 [44]사뭇쁘라칸(Samutprakran), 머드 마사지와 해산물 메뉴를 맛보는 [45]팡아(Phang-Nga)가 느긋한 시간을 선사한다.



Laos

라오스

천혜의 환경 [16]남하(Nam Ha)와 [17]남칸(Nam Kan) 지역, 그리고 [18]남깃 여락빠(Nam Kat Yorla Pa) 리조트에서는 뽕뽕한 열대우림을 헤치며 트레킹하고, 때때로 나무를 오른다. [19]남엣 푸 라이(Nam Et-Phou Louey)는 야간 사파리 투어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20]푸파만 전망대(Phou Pha Marn Rock Viewpoint)가 자리한 카무안(Khamuan) 지역을 둘러볼 땐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을 발아래 두는 짜릿함을 누린다.



Viet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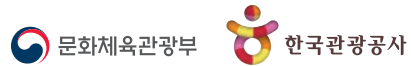
베트남

이름난 휴양지가 여럿인 베트남은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여행 프로그램과 이를 제공하는 작은 마을을 가려 뽑아 소개한다. 소수민족의 전통문화와 때 묻지 않은 자연 속에 깃든 촌락 [46]쿤(Khun)·[47]신 수이 호(Sin Suoi Ho)·[48]타이 하이(Thai Hai)·[49]단 호아(Tan Hoa)·[50]도이(Doi)에 다다른 여행자는 현지 사람들과 자연스레 뒤섞여 음식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전통 의복을 차려입고, 신명 나는 축제를 벌인다.



DMO × 머무는 여행

지역 주민과 지역 사업체, 지자체가 뜻을 모아 지역관광추진조직 DMO를 꾸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충남 금산·공주·홍성 DMO는 지역 주민이 된 듯 여행지에 머물러 보길 권한다.



취재 협조 한국관광공사

머무르니 그곳이 더 좋아진다

여행과 일상을 함께 누리고 싶다. 여행하듯 일상을 살고, 일상을 보내며 여행하길 꿈꾼다. 지역 관광추진조직(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이하 DMO)은 여행자에게 그 해법을 알려 준다. 여행과 일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을 하거나, 농촌에서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지역의 삶을 체험해 보는 것이다. 관광지만 훑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살아가듯 머무르니 그곳이 더 좋아진다. 익숙지 않던 고장이 친숙해진다.

지역 관광의 길잡이, DMO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DMO는 지역을 속속들이 이해하는 집단이다. 주민, 지역 사업체, 지자체, 지역 협회 등이 한데 모였기 때문이다. DMO의 최우선 목표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이다. 지역 이해도가 높은 DMO는 그곳의 속살을 파고드는 여행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나아가 지역 자생력을 높이는 사업을 전개한다. 충남 금산·공주·홍성 DMO의 제안을 따라 여행길에 올랐다.





소박하고 따뜻한 농촌 체험 워크ेशन

산에 둘러싸인 '조팝꽃 피는 마을'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며 푸근한 농촌을 체험한다.

금산 제원면 길곡리를 설명하자면 신선을 빼놓을 수 없다.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싼 신음산은 신선이 사는 산이라 전한다. 최고봉인 국사봉 아래에는 사찰 신안사가 자리하는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여 신라 경순왕이 붙인 이름이다. 신음산이 풍수해를 막아 편안하고 조용한 이곳에 '조팝꽃 피는 마을'이 들어섰다.

"조팝꽃 피는 마을은 농촌 체험 시설입니다. 본래 이 자리에는 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였지요. 한때는 먼 단위 최대 학생 수를 자랑했지만 인구가 줄어 폐교됐습니다. 고령화된 마을을 살리고자 2008년 길곡리 주민들이 뜻을 모아 건물을 헐고 2010년 조팝꽃 피는 마을을 지었죠." 배순철 조팝꽃 피는 마을 위원장은 금산 토박이로, 시설 조성 단계부터 참여했다. "옛 학교 부지를 활용해 건물과 운동장이 넓어요. 회사 워크숍이나 세미나, 수련회 등 단체 방문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지요. 최근에는 방문객 범위가 넓어졌답니다."

금산 DMO가 조팝꽃 피는 마을을 워크ेशन 시행처로 선정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어났다. 워크ेशन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성한 단어로, 금산 DMO는 '가족이 함께하는 워크ेशन'을 목적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마침 조팝꽃 피는 마을은 시설 내 숙박 공간이 있는데 다양한 농촌 체험을 즐기기에 적합해 가족 단위 관광 사업에 알맞은 장소였다. DMO는 이곳에 워크ेशन을 위한 업무 공간을 추가로 마련했다. "별채 사무소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비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잠시 일하는 동안 아이들은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놀거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답니다. 어떤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안내에 따라 발걸음을 옮겨 마을 어귀의 인삼밭에 이른다. 밭을 뒤덮은 검은 차광막을 비집고

문단규 © 신간



들어선다. 짙 더미를 치우고 낮으로 흙을 어루만지듯 살살 파자 굵직한 인삼이 고개를 든다. 흙 냄새와 인삼 향기가 코를 간질인다. 깨끗하게 손질한 삼을 활용해 인삼주 담그기에 돌입한다. 얇게 저민 인삼편을 돌돌 말아 꽃대 삼고, 편을 더해 실을 묶어 가며 풍성한 꽃잎을 만든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린다. "힘들죠? 평상시 안 쓰는 근육을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소근육을 쓰는 게 건강에도 좋다 하니 더 만들어 볼까요?" 주민이 친절한 설명을 덧붙인다. 인삼편으로 만든 장미 모형 여러 개를 한 뿌리에 접붙인다. 작품처럼 멋진 인삼을 병에 넣은 뒤 술을 부으면 완성이다. 벌써 숙성된 인삼주가 기다려진다.

워크ेशन 농촌 체험 프로그램은 마을에서 나는 인삼·깻잎·두메부추 등을 활용한다.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여행자는 길곡리 농가에서 작물을 수확하고, 주민 안내에 따라 각종 농촌 체험을 즐긴다. 조팝꽃 피는 마을의 백미로 꼽히는 식사도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한다. 여행자가 직접 만든 인삼떡갈비와 부녀회에서 마련한 음식이 한 상에 오르자, 건강한 음식에 젓가락이 바쁘다. 체험을 하는 사이사이에 급한 업무도 처리했다. 정다운 농촌에서의 알찬 하루가 저문다. 인삼처럼 은은하고 달콤한 시간이다.



조팝꽃 피는 마을 금산 DMO는 조팝꽃 피는 마을에서 농촌 체험형 워크ेशन을 진행한다. @geumsanstay




GONGJU
DMO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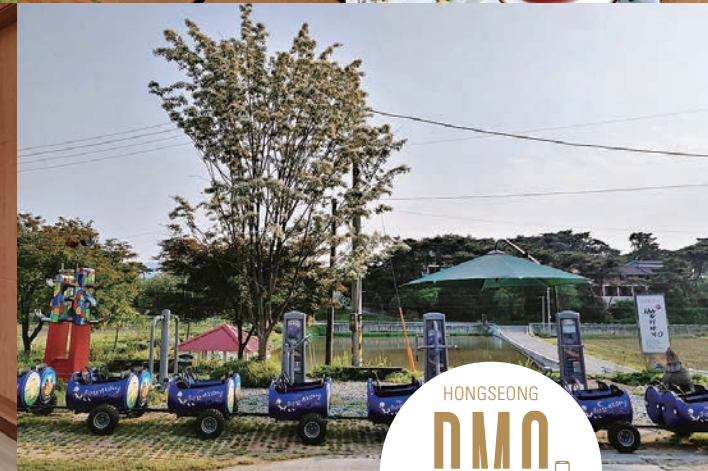
마음 따라 길 따라 힐링 세러피

공주한옥마을에 여장을 풀고
고마나루 솔밭에서 마음을 치유한다.

아득한 옛날, 곰이 인간을 사랑했다. 인간이 곁을 떠나 버리자 슬픔에 잠긴 곰은 강물에 몸을 던진다. 공주 웅진동에 전하는 설화다. 곳곳에 옛이야기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고마나루 솔밭도 그중 하나다. 사철 푸른 소나무 군락 곁에 유유히 흐르는 금강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이 찾는다. 공주 DMO의 '치유·힐링 워케이션' 체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자연동작치유도 이곳에서 진행된다. 맑은 공기와 청정한 환경이 치유 효과를 높인다. "맨발로 걸으며 자연을 느껴 보세요." 자연동작치유사인 강희자 산처럼힐링센터 대표가 참여자를 이끈다. 오감을 열고 자연을 만끽한다. 숲이 뿜어내는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새소리와 바람 이는 소리에 귀 기울인다. 바닥에 앉아 명상하는 시간도 가진다. "명상은 나를 탐험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내 마음을 짚어 보는 것이지요." 명상에 빠져든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동안 스스로를 다독이지 못한 지난날을 되짚는다. 그저 자연 속에서 호흡하며 나를 직면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공주 DMO의 치유·힐링 워케이션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 공주한옥마을로 향한다. 숙소이자 다도·미술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는 장소다. 사무 공간인 백제방에서 잠시 일한 뒤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다. 차분한 휴식을 누리니 오히려 마음에 활기가 차오른다.

 치유·힐링 워케이션 공주 DMO는 자연동작치유 등 '치유'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gongju_dmo

공주




HONGSEONG
DMO
2023

고즈넉한 한옥에서 촌캉스를

한옥 숙소 '달마당스테이'에서
여유로운 시골살이를 만끽한다.

바쁜 도시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농촌에서 살아 보면 어떨까? 문당환경농업마을은 1990년대에 오리 농법을 도입해 현재도 친환경 농업을 이어 간다. 논 사이를 돌아다니는 오리가 향토적 정취를 자아내는 마을에 지난 4월 한옥 숙박 시설 '달마당스테이'가 들어섰다. 전통 예절 교육관이던 공간을 탈바꿈한 것인데, 홍성 DMO 사업단의 제안에서 비롯했다. "마땅한 숙소가 없어 여행자가 마을을 방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달마당스테이를 준비했지요." 홍성 DMO와 달마당스테이를 동시에 이끄는 행복한여행나눔의 이화영 대표가 말을 건넨다. "달마당스테이는 오픈한 이후 반 년도 안 되어 500명 이상 다녀갔을 정도로 호응이 크답니다. 숙소도 좋지만 마을 여성 협동조합 '초록이동지'에서 운영하는 체험방에 모여 유기농 쌀빵을 만들거나 막걸리 공장에 들르는 등 마을에서 즐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말에서 자부심이 드러난다. "10월에는 마을에서 가을걷이 나눔 행사인 '유기농업축제'도 진행하니 더욱 풍성한 여행이 될 거예요." 달마당스테이에 들어선다. 아늑한 방에 앉아 탁 트인 눈을 한참 바라보니 잡념이 사라진다. 자전거를 끌고 마을을 구경하자 어느새 저녁이다. 마당에서 제철 맞은 대하를 굽고 장작불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다. 풍족한 하루가 저문다.

 달마당스테이 홍성 DMO는 한옥 숙소 달마당스테이를 중심으로 여러 체험 활동을 제안한다. ☎041-977-0700

홍성

懿陵



산책하고 사색하다

서울 청량리역과 가까운 곳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다.
조선 경종의 능인 의릉을 거닐며 일상에 여백을 찾았다.

의릉

서울에 '리'라는 지명이 남은 몇 안 되는 곳 청량리역은 언제나 북적북적하다. 1899년 5월, 최초의 기차인 경인선보다 먼저 전차 노선이 개통했으니 120년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이가 역과 광장 일대를 오갔을까. 비극적인 을미사변이 벌어지고 고종 황제는 명성황후의 능을 이 근처에 조성했고, 흥릉에 행차할 때 이용하려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를 운행한다. 대규모 인원이 움직이기에 전차가 유용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노선이 생긴 이유인 흥릉은 고종 사후 남양주로 옮겨졌지만, 청량리역은 중앙선·경춘선이 놓이며 교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무엇보다 이 역은 청춘의 상징이기도 했다. MT 가는 대학생, 난생처음 보호자 없이 혼자 혹은 친구와 동해를 보러 떠나는 청춘들이 청량리역에 모였다. 통기타의 추억이 옛이야기가 된 지금도 KTX-이음, ITX-청춘, ITX-마음 등 다양한 열차가 대한민국 곳곳으로 연결하는 역에는 여전히 분주함과 설렘이 교차한다.

서울 동북권의 교통 요지 청량리역에서 오늘의 여행을 시작한다. 목적지는 조선 20대 임금 경종의 능인 의릉이다. 역과 불과 4킬로미터 거리에 이토록 중요한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다.

1911년 문을 연 청량리역은 강릉선·경춘선·중앙선·태백선 등이 다니는 교통 요지다. 수도권전철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이 연결돼 이동하기 편리하다.



예우와 평안의 공간, 왕릉

복잡한 주택가와 고만고만한 길을 지나 문득 의릉이 나타난다. 초록의 고요한 능역 앞에서 세상의 번잡함이 일순 사그라지는 기분이다. 하늘이 숨겼다는 의미의 천장산 자락에 기대어 누운 왕은 경종이다. 숙종과 희빈 장씨의 아들로 태어나 서른두 살에 등극했으나 재위 4년 만인 1724년 세상을 떠났다. 효와 충을 최고 가치로 삼은 조선에서 왕의 장례가 오죽 엄숙하고 까다로웠으랴. <국조오례의>는 약 30개월간 60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기록했다. 왕릉 자리 선정부터 공사, 안치만 해도 5개월 정도가 걸렸다. 능 위चना 주변에 배치하는 석물, 부장물까지 규정을 철저히 지켜 5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조선 모든 임금



의릉은 조선 경종과 선의왕후의 능으로 1724년 조성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왕릉 40기 가운데 하나다. 1960년대 중앙정보부가 들어서면서 훼손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기관이 이전한 뒤 복원 과정을 거쳐 개방하고 있다.



의 능이 일정한 형태로 잘 관리되었고, 유네스코도 이를 인정해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흥살문 앞에 서자 정자각이 들어온다. 능은 아직이다. 조선 시대엔 왕을 마주 대하는 일을 금기시했고, 능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일 또한 마찬가지였기에 제를 올리는 정자각 건물을 활용해 능을 절묘하게 가렸다. 박석을 깬 참도의 왼쪽은 혼령이 다니는 신도, 오른쪽은 왕이 걸은 어도다. 참도가 중간에 90도로 꺾이는 이유 역시 능을 향하는 시선을 차단하려는 의도다.

정자각에서 고개를 낮추어야 비로소 맞은편 문을 통해 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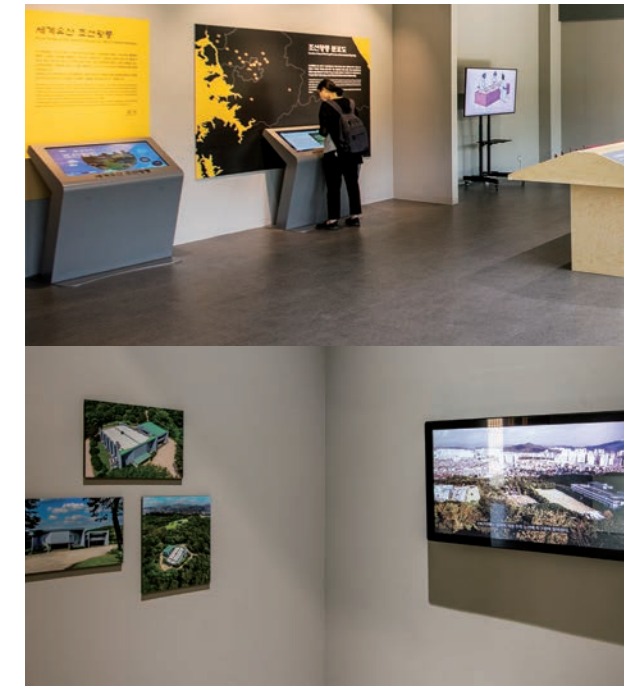
이 들어온다. 경종과 그의 계비 선의왕후의 능이 앞뒤로 나란히 있다. 지형을 읽고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조성했다 한다. 정자각을 나와 능 아래를 천천히 산책한다. 담소를 나누는 노부부, 나뭇잎과 곤충을 신나게 관찰하는 아이가 지나간다. 신분제도가 사라졌음을 새삼 실감한다. 능을 지키라고 호랑이와 양, 문인과 무인을 돌로 만들어 빙 둘러놓았는데, 오랜 세월 비바람에도 300년 전 조상이 조각한 손길이 남아 있다. 무석인의 갑옷, 석호의 표정, 석마가 디딘 땅의 풀. 가신 이를 극진히 예우하는 마음으로 새겼을 석물 하나하나가 정답다. 한때 높이가 3미터에 이르렀던 문석인과 무석인은 숙종의 명으로 작아졌다. 고생하는 백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능의 규모와 석물 크기가 잘 어우러진다. 뒤편엔 해발 140미터 천장산. 길지를 고르고 골라 조성했을 능에 가을별이 드리운다. 양지바른 길지의 초록은 먼저 가신 왕뿐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에게 계도 휴식을 선사한다.

뼈아픈 역사까지 품어 안은 숲과 역사문화관

모든 왕릉에는 숲이 있다. 자연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도를 찾은 선인이 선왕을 추모해 꾸린 안식의 자리에 숲은 필수였다. 그 덕분에 후손은 조선 어느 왕릉을 가든 그윽한 공기를 누린다. 능을 감싼 숲에 든다. 소나무, 오리나



지난 6월 개관한 의릉역사문화관은 조선 왕릉과 의릉에 얽힌 이야기, 장례 과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석물 모형을 만지며 살필 수 있어 유익하다.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영상을 비롯해 중앙정보부가 들어선 시기의 의릉까지 잘 보여 준다.



누구든 일상을 벗어나 존재를 사유할 여백의 시간이 필요하다. 흙으로 돌아간 왕이 누운 땅, 능과 숲이 어우러진 왕릉이 그 여백을 내준다. 마침 걷기도, 생각하기도 좋은 계절이다.



무, 산딸나무 등 다양한 나무 사이로 언뜻언뜻 능의 고운 선이 드러났다 가려졌다 한다. 자연은 누구보다 계절에 예민해, 흙 속에 누운 왕도 이 가을을 완상하겠다. 차분함과 생기 어린 발랄함이 공존하는 숲길을 몇 분 걷는데 이질적인 건물이 등장한다. 놀랍게도 옛 중앙정보부 강당이다. 사연은 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권을 잡은 세력이 의릉을 점찍고 일대 토지와 임야 관리권을 가져간다. 1962년 들어선 중앙정보부는 정자각 앞에 연못을 파 비단잉어를 풀고, 숲의 나무를 베어 운동장을 만든다.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던 시절 이라지만 뼈아픈 일이다. 사람들 접근이 차단된 채, 능과 정자각은 덩그러니 고립되었다. 1995년 서초구 내곡동에 새로운 청사를 지어 옮기고 나서 능력을 복원할 때 정보기관 특성상 전기, 수도 시설 등 위치조차 제대로 표기한 문서가 없어 어려움이 컸다고 한다. 지난여름 문을 연 의릉역사문화관은 조선 왕릉과 의릉의



이야기는 물론 중앙정보부 시기의 역사도 착실히 알려 주는 전시관이다. 다행히 오늘의 숲에는 왕릉 숲만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흐른다.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는 것도 사람, 오류를 반성하고 다시금 정성을 쏟은 것도 사람. 넉넉한 자연이 또 한 번 사람을 받아 주었다.

유한한 존재에게 여백을

삶의 공간인 지구는 죽음의 공간이기도 하다. 사람은 지구에서 유한한 시간을 살다 지구에서 죽는다.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하는지, 하루하루 허겁지겁하다가 때때로 막막해진다. 분명한 사실은 주택가와 상가, 회사를 벗어나서 존재를 사유할 여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흙으로 돌아간 왕이 누운 땅, 보드라운 선의 능과 숲이 어우러진 왕릉이 그 여백을 내준다. 마침 걷기도, 생각하기도 좋은 계절이다. ㉞

프로모션



알싸한 인삼 향내 따라, 2023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

인삼을 수확하는 이 계절이면 향긋한 냄새가 흐드러진다.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를 경유한 가을 여행을 계획한다.

명당 중의 명당, 경북 영주 풍기읍은 예부터 기후가 서늘하고 배수가 잘되는 마사토를 지녀 질 좋은 삼이 나기로 이름 높았다. 조선 중종 때 풍기군수를 지낸 주세붕은 백성으로 하여금 소백산에서 자생하는 산삼 종자를 이곳에 심어 인삼을 재배하게 했다.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는 16세기부터 오늘날까지 풍기의 문화와 역사를 일군 인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지역 대표 행사다. 한창 물오른 인삼을 수확하는 가을에 찾아오는 축제로, 올해는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총 9일간 풍기읍 남원천 및 인삼팝업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인삼 축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채로운 기획 전시와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영양분이 풍부한 풍기인삼으로 요리한 메뉴를 시식하거나 인삼 깎기 등 흥미진진한 행사를 체험하고, 지역 농가에서 정성껏 수확한 인삼과 가공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나 본다. 인삼박물관에서는 10월 6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인삼을 새기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특별 기획전을 개최해 전통 생활용품에 아로새긴 인삼 문양의 의미와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펼친다.

"인삼은 오장의 부족한 기를 채워 주고, 정신과 혼백을 안정시켜 눈을 밝게 하며, 허약하고 기운이 약함을 보한다." 인삼의 효험을 기록한 <동의보감> 한 대목이다. 풍기의 역사와 인삼에 깃든 풍요로운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우리를 기다린다.



풍기읍치돌레길 벽화

풍기의 역사와 문화, 특산물, 항일운동 등 구간마다 다양한 벽화가 이어지는 풍기읍치돌레길에서 특별한 골목 여행을 즐겨 본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풍기인삼 지식

- 1— 영주 풍기읍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삼 재배지다.
- 2— 풍기인삼은 유기물이 풍부한 소백산 자락의 마사토와 서늘한 기후를 양분 삼아 자란다.
- 3— 풍기인삼은 조직이 충실하고 향이 강하며 사포닌 함량이 매우 높다.



바로 지금, 2023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

- Ⓢ 행사 및 공연 개·폐막 공연, 풍기인삼 개삼터 고유제, 주세붕 군수 행사 재연, 풍기인견 패션쇼, 읍면동한마음대회, 소백산 인삼 씨 뿌리기, 덴동어미 마당극, 4인 4색 7080콘서트, 신나는 드림 콘서트, 예술인의 밤 등
- Ⓢ 체험 프로그램 풍기인삼 경매, 인삼 깎기 대회, 인삼병주 만들기, 홍삼 인절미 떡메 치기, 천연염색 체험, 여우가면 만들기, 기념사진 무료 인화 등
- Ⓢ 전시 인삼 유등, 팝업공원 빛 축제

문의 www.ginsengfestival.co.kr

풍기인삼축제 여행자를 위한 영주 볼거리 & 즐기기거리



#소수서원

최초의 사액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보존하는 건축물과 주변 풍경이 아름답다.



#용마루공원

영주담에 조성한 공원으로 물문화관, 평은역사 등 볼거리가 여럿이다.



#관사골

영주역 뒤편 언덕에 조성한 철도 직원 관사촌이 오늘날 벽화 마을로 탈바꿈했다.



#무섬마을

옛 가옥 모습이 고스란한 물돌이 마을. 10월 7일~8일에 무섬이나 무다리축제가 열린다.



#부석사

목조건축의 미감이 깃든 무량수전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다.



#선비세상

선비 정신과 전통문화를 배우며 다도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기는 테마파크다.



#정도너츠

생강, 인삼, 들깨 등 영주 농산물을 사용해 재료 고유의 향이 두드러지는 도넛이다.

신비로운 갈대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곳, 강진만생태공원에서 가을 향기 물씬한 갈대 축제가 열린다.



권근기 ©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마음을 간질이니 계절의 정취를 만끽 하러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때다. 가을 여행지를 물색 중인 이에 게 전남 강진이라는 선택지를 내민다. 찬란한 청자 문화와 깨끗한 자연을 품은 데다, 흥이 넘치는 '제8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생명이 숨 쉬는 곳

축제의 무대는 바로 강진만생태공원. 탐진강이 강진만과 맞닿아 담수, 해수가 섞인 특이한 환경을 조성한 까닭에 다양한 생물이 이곳을 보금자리로 삼았다. 다만 처음부터 지금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다. 강진 사람들이 노력을 쏟아 하수 종말 처리장이던 곳

을 2014년 여전한 생태공원으로 바꾸었다. 자연과 사람이 완성한 공원은 늘 생기가 감돈다. 크고니, 큰기러기 같은 철새부터 붉은발말뚱개, 수달 등 쉽게 보기 힘든 생물이 갯벌과 풀숲 사이에서 살아 숨 쉰다. 특히 자랄 때 담수와 해수 모두 필요로 하는 갈대는 강진만생태공원에 군락을 이루어 이 계절에 장관을 연출한다. 여기에 나무 데크를 설치해 사람이 갈대밭과 갯벌 사이를 거닐 수 있도록 했고, 2022년 6월에는 자전거 여행센터를 마련해 갈대숲을 따라가며 풍경을 만끽하도록 자전거도로도 닦았다. 게다가 일대가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강진만 생태홍보관, 크고니를 형상화한 고니다리마와 아기자기한 포토 존 등을 마련한 덕분에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다.



갈대의 향연 속으로

올해도 강진에서 갈대 축제가 열리니 그 소식에 귀 기울인다. 여덟 번째를 맞은 축제는 갈대와 사람을 주제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해 더욱 다채롭다. 의식, 기획, 체험, 공연, 전시, 부대 등 총 여섯 분야로 나누어 마흔 개가 넘는 행사를 펼친다. '갈대를 만나기 위한 사람들의 꽃단장'이라는 드레스 코드를 지정해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드레스 코드를 깜빡 잊었다면 갈대 모자 꾸미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만의 모자를 만든다. 갈대숲 생태 탐험대 프로그램으로 강진만의 생태계를 자세히 관찰하고, 직접 만든 모자를 쓴 채 갈대 모자 거리 패션쇼에 참가해 솜씨를 뽐내도 좋겠다. 공원에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을 들으며 갈대밭을 산책하자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 산책로를 내리찍는 따가운 햇빛은 양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길 중간에 놓인 이색 그늘막에서 피하니 걱정 없다.

볼거리도 풍부하다. 우선 감성 K-팝 콘서트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갈대밭을 배경으로 미디어 파사드 쇼가 열리고, 반짝반짝한 LED 게이트 타워를 설치할 예정이다. '춤추는' 축제이니만큼 탭댄스 세리머니, 줌바·댄스 교실과 다양한 버스킹이 열려 눈과 귀가 즐겁다. 강진에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이는 이곳에서만 가능한 '푸소' 체험으로 여유롭고 감성적인 촌캉스를 경험해도 좋겠다. 축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여장을 꾸렸다면 남은 것은 이제 한 가지뿐이다. 너른 들판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충만한 생명력이 여행자를 반기는 고장, 강진으로 떠날 차례다.

제8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

기간 10월 13일~22일 장소 강진만생태공원 일원
주요 행사 갈대숲 생태 탐험대, 갈대 모자 꾸미기 등
문의 061-430-3354





문화가 꽃피는 섬, 신안

10월, 전남 신안이 '예술섬 프로젝트'로 나날이 반짝거린다. 섬에서 나고 자란 박우량 신안군수와 가을 향기 그윽한 신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신안 토박이로서 신안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오랫동안 이 고장을 돌보고 살피 온 만큼 애정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A. 반갑습니다. 신안군수 박우량입니다. 저는 신안을 바다 위의 보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섬을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숫자가 바뀌기도 하지만, 신안군에 존재하는 섬은 유인도 74개, 무인도 951개를 합해 무려 1025개입니다. 각각 특징이 다르니 1000개가 넘는 보물을 보유한 셈이지요. 이 일대의 갯벌 144제곱킬로미터(약 4356만 평)가 신안갯벌도립공원인 데다, 유네스코가 이 고장 전역을 다도해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깨끗하고 다채로운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자연뿐 아니라 근현대 한국 화단의 거장 김환기 화백 이야기가 담긴 안좌도, 중국 송·원나라 때의 해저 보물이 발견된 증도 등 문화유산도 풍부하답니다.

Q. 9월 팔금도에서 '섬 왕새우 축제'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10월에도 '섬 아스타 꽃 축제' 등이 열릴 예정이죠. 신안은 그야말로 축제의 고장인 듯합니다. 앞으로 진행할 축제를 소개해 주세요. A. 우리 고장의 장점을 많은 이와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깨끗한 해양 환경을 갖춘 덕에 왕새우, 우럭, 볼락 등 수산물을 주인공으로 한 축제가 9월을 흥겹게 했고, 10월에도 여러 축제가 그 분위기를 이

신안의 때 묻지 않은
자연과 건축물,
조각 등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1004뮤지엄파크에서
진행하는 '100+4 피아노
오케스트라 콘서트'도
꼭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어 갑니다. 지도읍은 '섬 새우젓 축제' 준비로 분주합니다. 신안 새우젓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한 천일염을 사용해 감칠맛이 깊기로 유명합니다. 꽃 축제도 빼놓을 수 없지요. 퍼플섬으로 잘 알려진 반월도·박지도에서 '섬 아스타 꽃 축제'를, 병풍도에서 '섬 맨드라미 축제'를 진행합니다. 색색의 가을꽃으로 물들어 알록달록한 신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Q. '1도 1뮤지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신안이 예술섬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도 궁금합니다. A. 신안을 문화 예술이 꽃피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1도 1뮤지엄'이라는 슬로건으로 26개 섬에 박물관, 미술관을 짓는 것이지요. 특히 자은도에 들어설 인피니도 뮤지엄에 주목해 주세요. 세계적인 문화 예술 명소를 자은도에 구축하고



자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스위스 출신 건축가 마리오 보타와 박은선 조각가가 공동으로 작업해 더욱 기대됩니다. 현재 압해도의 저녁 노을미술관을 포함해 15개 예술 공간이 생겼고, 11개 프로젝트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신안의 때 묻지 않은 자연과 건축물, 조각 작품이 어우러지는 풍경...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Q. 10월에 '2023 문화의 달' 행사도 열린다고요. 어떤 행사인가요? A. 2023년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섬 다양성의 보고'를 주제로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에서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방문객이 신안의 자연환경 안에서 전시, 워크숍, 공연을 편안하게 즐기도록 준비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104대의 피아노를 동시에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콘서트예요. 클래식, 국악, 가요,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해 수준급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합니다. 쉬이 보기 힘든 퍼포먼스이니만큼 많은 분이 즐기셨으면 합니다.

Q. 맛과 멋이 가득한 남도에서 음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신안의 맛있는 특산물을 추천하신다면요? A. 졸기가 굵은 대파·양파, 자은도 땅콩과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섬 초'라는 별명을 가진 비금도 시금치까지 농산물이 넘칩니다. 청정한 바다와 너른 갯벌을 보유한 덕에 수산물은 또 어떨고요. 앞서 소개한 왕새우, 볼락, 우럭과 새우젓, 홍어 그리고 갯벌에서 잡아 올린 빨낙지도 맛이 훌륭합니다. 계절마다 품질이 뛰어난 농수산물이 나니 미식 여행을 계획해도 좋겠습니다.

Q. 올가을 신안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신안 여행 꿀팁을 알려 주세요. A. '피아노의 섬'이라는 애칭이 붙은 자은도로 떠나는 것은 어떻게요? 백길, 둔장, 양산 등 해변이 9개나 있어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펼쳐진답니다. 복합 문화 단지 1004뮤지엄파크에서 열리는 '100+4 피아노 오케스트라 콘서트'도 기억해 두었다가 꼭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와 예술로 더욱 빛날 신안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PHOTO PICK

신안 여기서 한 컷



퍼플 퍼플! 🍷
보랏빛 여운 가득 머금은
지금 여기는 신안 퍼플섬 🌸

신안에서 우리 함께 꽃길만 걸어요. 🌸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신안군입니다. 🍷

#신안 #신안여행 #신안퍼플섬
#퍼플고 #버들마편초꽃
#신안버들마편초꽃 #신안돌러보기좋은곳
#신안해안산책로 #신안여행코스
#신안꽃 #보라색 #아스타꽃축제

마음을 잇다, ITX-마음

지난 8월, 강원도 태백역에서 신형 동력 분산식 일반 열차 ITX-마음이 공개됐다. 승객의 발이 되어 줄 새로운 열차의 탄생에 기여한 이들을 만나 보았다.



(왼쪽부터) 이상용 부장, 조영래 과장, 김환철 과장, 최주빈 대리

Q. ITX-마음, 어떤 특징을 지닌 열차인가요? A. ITX-마음은 최고 속도 시속 150킬로미터로 달리는 신형 동력 분산식 열차입니다. 동력 분산식 열차는 기존 열차와 달리 동력 장치를 전 객차에 분산해 공간 활용도가 높고, 가속·감속 성능이 좋습니다. 역 간 거리가 다소 짧은 한국의 철도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을 적용한 셈이죠. 운행 시간을 아끼고 수송 승객도 늘어나니 시대 정신에 부합한 친환경 열차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9월부터 운행에 들어간 열차는 4칸 편성이며, 두 대를 연결해 총 528석의 중련·복합 열차로 운행 가능합니다. 노선이나 요일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에요. 차량 기술단 일반차량처 조영래 과장

Q. ITX-마음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가 이름입니다. 작명 과정을 들려주세요. A. 인지도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이름을 고민한 끝에 지난해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8175명의 응모 결과를 분석해 21개 후보를 추렸지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등 보다 정교한 브랜드 개발 과정을 통해 다시 5개 후보를 선정, 지난 8월 10일 열차명칭선정위원회를 거쳐 ITX-마음이라는 이름이 최종 채택되었습니다. '마음을 담아, 승객의 설레는 마음을 품고 달리다'라는 콘셉트에서 착안했고, 한국철도공사 서비스 슬로건인 '마음을 잇다'와 연계하려는 의도를 담아 낸 결과물입니다. 푸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환기해 기차가 간직한 서정적 분위기를 한층 돋우고, KTX-이음과 유기적으로 어울리도록 했습니다. 홍보문화실 문화홍보처 이상용 부장

Q. ITX-새마을을 닮은 디자인이 눈에 띄네요. 디자인 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고려하셨는지요. A. ITX-마음은 열차 디자인과 네이밍, 아이덴티티 등을 동시에 아우르며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노후한 무궁화호를 대체할 차량이라는 점, ITX-새마을과 동급으로 제작한 열차라는 점을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지요. 이를 위해 기존 ITX-새마을 열차의 색 조합을 활용해 최대한 안정감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ITX-마음을 ITX-새마을의 업그레이드 버전 열차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다른 열차와 혼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홍보문화실 디자인센터 최정호 팀장

Q. 차내 편의 시설 중 각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ITX-마음은 일반 열차임에도 KTX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고객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열차 내 무선 인터넷을 활성화하고 전원 콘센트와 USB 포트, 독서등 같은 개인 설비를 충실히 마련했지요. 그 외에도 객실 영상 장치, 장애인 화장실과 수유실 등을 고급화하고, 일반 열차 중 최초로 객실 사이에 입석 승객을 위한 간이석을 설치했습니다. 승객 안전을 위해 방범용 CCTV, 위급 상황 비상 호출 스위치, 자동심장충격기도 비치했지요. 승강장 높이에 따라 출입문 발판을 조정해 향후 광역 철도망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KTX 등 간선 열차가 다니는 낮은 승강

동력 분산식 열차는 동력 장치를 전 객차에 분산해 가속·감속 성능이 좋습니다. 역 간 거리가 다소 짧은 한국의 철도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이죠. 운행 시간을 절약하고 수송 승객도 늘린 친환경 열차입니다.

장(저상 홈)과 전철역의 높은 승강장(고상 홈)에 모두 정차하도록 말이죠. 가장 중요한 좌석 공간도 넓찍하게 설계했으니, 쾌적하고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객사업본부 여객계획처 최주빈 대리

Q. ITX-마음의 운행 계획이 궁금합니다. A. ITX-마음은 9월 1일부터 경부, 호남, 전라, 태백선에 1일 14회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경부선 서울~부산 4회, 호남선 용산~목포 4회, 전라선 용산~여수엑스포 4회, 태백선 청양리~동해 2회씩 운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임은 기존 ITX-새마을과 같지만, 개통을 기념해 10월 31일까지 20퍼센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주중에만 시행하던 공공 할인도 주말까지 적용하니 더 많은 고객님이 이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객마케팅단 여객마케팅처 김환철 과장

내가 꿈꾸는 ITX-마음 여행 목적지

- 차량기술단 일반차량처 조영래 과장 ▶ ITX-마음의 명명식을 진행한 강원도 태백역
- 홍보문화실 문화홍보처 이상용 부장 ▶ 지리산과 섬진강이 자리한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 홍보문화실 디자인센터 최정호 팀장 ▶ 바다를 따라 강원도 강릉과 경북 포항을 지나 울산까지
- 여객사업본부 여객계획처 최주빈 대리 ▶ 태백선으로 닿을 수 있는 나의 첫 발령지 강원도 영월
- 고객마케팅단 여객마케팅처 김환철 과장 ▶ 우리 가족 모두가 사랑하는 최고의 휴가지 부산



+ ITX-마음을 소개합니다

ITX-새마을 이후 약 10년 만에 새로이 선보이는 ITX-마음은 노후 디젤 열차를 대체할 차세대 일반 열차다. 최첨단 기술을 집약해 친환경 철도, 스마트 철도의 미래를 제시한다. 2028년까지 ITX-마음 107대를 전국 일반 철도 노선에 순차적으로 확대 운행할 예정이다.



Treasure of Korea



백제의 또 다른 미감 - 호자

어떤 동물이 입을 벌리고 몸을 든 상태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있다. 몸에 머리, 가슴, 배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토실토실해서 귀엽기까지 하다. 등에 달린 손잡이를 보니 무언가를 담아 들고 다니던 그릇 같지만 쓰임새가 아리송하다. 고대 한·중·일 세 나라에서 쓴 이 유물의 이름은 호자(虎子), 곧 호랑이를 닮은 그릇이며, 용도는 휴대용 소변기다. 중국의 옛 문헌 <예창사지>와 <서경잡기>에는 “신선이 호랑이의 입을 벌리게 하고 소변을 보았다” “호랑이 모양 그릇에 황제가 소변을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신분을 가진 이가 이런 소변기를 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부여 군수리에서 출토된 호자는 풍만하고 매끈한 몸의 곡선으로 백제 사람이 추구한 미감을 보여 준다. 부여 관북리의 호자는 군수리 것보다 우아한 맛은 적지만, 백제 후기 왕궁으로 추정하는 곳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Baekje's Sense of Aesthetics -Tiger-Shaped Pot

The animal, with its mouth open and body raised, is turning its head to the left. Named Hoja, which means “tiger-shaped pot,” the vessel was actually a portable urinal. In ancient Chinese documents, there are stories of “making a tiger open its mouth and urinating” and “an emperor urinating in a tiger-shaped vessel.” Such passages provide clues about the social status of those who used this urinal. The curvaceous form of Hoja from Gunsu-ri in Buyeo highlights the aesthetics sought by the people of Baekje. The Gwanbuk-ri Hoja is less elegant but holds significance for being discovered in a location presumed to be a royal palace of the late Baekje period.

나른하고 권태로운 환절기, 면역력 높이고 건강 나이 낮추는 프리주비네이션

급격하게 변화한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대비할 때다.
환절기, 든든한 노화 예방주사 프리주비네이션에 도전한다.



프로모션

환절기 건강 지키는 프리주비네이션 시술 추천

조찬호 원장은 가을철에 특별히 추천하는 시술로 '모셀(毛Cell)'을 꼽는다. 가을에는 여름보다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체내 효소에 의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하며 모발 성장을 억제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도록 작용한다. 다른 계절보다 가을철에 유독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때 줄기세포 관리를 더하면 튼튼한 두피와 모발 등 신체를 강화할 수 있어 여러모로 유리하다.

조 원장은 이와 함께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1년에 두세 번 병원을 찾아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라고 조언한다. 유전자 검사로 취약점을 미리 인지하고,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 현재 몸 상태를 파악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내 몸을 잘 아는 '단골 의사'를 만드는 것도 현명한 건강 관리 비결이다. “미래 의학은 발병하고 난 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선제적 안티에이징에 집중하고 있다.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외모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게 건강은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조 원장은 조언한다.

청담셀의원은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의료 기관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됐다. 특히 한국에서 골수·지방 줄기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극소수 의료 기관 중 하나다.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노화 줄기세포 치료 부문에서 5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병원을 이끄는 조찬호 원장은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항노화 의학 전문가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내려가는 요즘, 여름을 무사히 보냈나 싶었더니 서늘해진 바람에 체력이 부쩍 떨어진 이가 많다. 한여름 폭염에 기운을 잔뜩 소진하고는 이제야 체력적 부담을 체감하는 것이다. 환절기에 우리 몸은 큰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우선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날씨엔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고, 심지어 여름철 일조량이 줄어 신체 리듬이 깨지면서 무기력한 느낌이 지속되기도 한다.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은 환절기에는 활기찬 생활 습관을 기반으로 건강에 플러스 요소가 될 만한 관리를 더해 보라고 제안한다. 기온이 없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게 모두 '관리하라'는 신호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가을을 보내는 일이 힘들어지게 마련인데, 여기엔 노화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술로 가을철 무기력증을 이겨 내고, 다가올 겨울에 대비할 체력을 길러 놓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프리주비네이션 시술은 줄기세포 정맥 주사다. 줄기세포는 자가 재생 능력과 분화 능력을 지닌 원시세포다.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혈관을 형성해 혈액순환을 도우며, 단백질 합성 효과를 높여 기초 체력을 끌어올린다. 여기서 나아가 난치병 치료, 치매 예방 등 다양한 효과로 의료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 원장은 “프리주비네이션 시술은 줄기세포를 충전함으로써 몸을 젊게 깨우는 것”이라며,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수록 노화가 가속화하는 시점도 더 늦춰진다고 설명했다.

줄기세포를 정맥에 주사하면 체력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다. 청담셀의원은 이 같은 줄기세포 효과에 주목, 체력 저하와 노화된 몸을 개선하기 위한 줄기세포 정맥주사 '청셀(淸Cell)'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체 줄기세포를 채취해 링거로 주입, 이 밖에 줄기세포를 타겟 부위에 집중 투여해 젊음을 잃어 가는 국소 부위 회복도 기대해 볼 만하다. 성 기능을 증진하는 '성셀(性Cell)',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개선하는 '미셀(美Cell)', 두피에 주사해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Cell)', 약해지기 쉬운 인대를 더 탄탄하게 해 주는 '활셀(活Cell)' 등이 여기 속한다.

프리주비네이션, 노화에 앞서 건강을 유지하라

조 원장은 환절기 건강에 노화를 예방하는 처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노화 이후 젊음을 찾으려는 안티에이징보다 프리주비네이션이 각광받는 이유다. 조 원장은 “프리주비네이션은 노화 신호를 느끼기 전부터 건강한 체력을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 치료를 통칭한다”라며, 이를 “일종의 노화 예방주사”라고 강조한다. 프리주비네이션 시



청담셀의원 02-514-2225



<수학을 배우는 숨은그림찾기(자연탐구)>

다섯 종류의 숨은그림찾기가 담긴 책으로 집중력과 관찰력을 기른다. 똑같이 보이는 쿠키 중에서 다르게 생긴 것을 찾고, 동물 친구가 어디 숨었는지 둘러본다. 복잡한 규칙을 풀어나 보물 상자를 발견하는 기쁨도 누린다. 아지각이한 그림 덕에 퍼즐을 풀고 나서도 자꾸만 책을 들여다보게 된다. 노란우산 유아 콘텐츠 연구소 지음 노란우산 펴냄

Puzzle

editor. 남혜림 자료 협조 노란우산

16

숲속, 아름드리나무에는 맛있는 과일도 열리고, 귀여운 동물들도 놀러와요.
이 곳에서 귀여운 다람쥐 3마리를 찾아보세요.



* 다람쥐와 새 타는 친구는 노란우산 유아 콘텐츠 연구소 지음 노란우산 펴냄

* 정답은 116쪽에 있습니다.

파나소닉 안마의자, 휴식과 이완을 선물하는 시간

10월, 안마의자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파나소닉이 특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생활의 품격을 높여 줄 나만의 안마의자를 만날 기회다.

하루가 다르게 계절이 깊어 간다. 아침저녁으로 한기가 목덜미를 파고드는 이즈음이면 피로감과 중압감에 온몸이 축 늘어지기 쉽다. 예민하고 사려 깊게 건강을 챙겨야 할 시기, 안마의자를 눈여겨볼 때다. 헬스케어 가진 분야에서 안마의자 기술을 이끌어 온 파나소닉은 88년 동안 부단한 연구를 거듭하고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최고 수준의 제품력에 도달했다. 파나소닉 안마의자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 주는 것은 마사지 볼이다. 세밀하게 압력을 전달해 피로를 해소하는 마사지 볼은 다채로운 주무르기 기능으로 입체적인 안마 코스를 수행한다. 파나소닉의 하이엔드 안마의자 EP-MAK1은 섬세한 취향과 안목을 지닌 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마사지 볼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안마를 선보이기 때문이다. 문제 부위에 효과적으로 접근해 지압·두드리기·스트레칭 등 여러 기능을 실행하고, 터치패널 컨트롤러를 탑재한 덕에 취향에 맞는 마사지 메뉴도 고를 수 있다. 몸 구석구석 뭉친 근육을 전문가의 손길로 공들여 풀어 주는 EP-MAK1이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도록 도울 것이다.



EP-MAK1(아이보리)



EP-MAK1(베이지)



EP-MAK1(블랙)

EP-MAK1

마사지 전문가의 지압 패턴을 분석해 그대로 재현한 하이엔드 안마의자 EP-MAK1은 문제 부위에 효율적으로 접근해 지압, 스트레칭, 문지르기, 주무르기 등 방대하면서도 정교한 마사지 코스를 수행한다. 나아가 마사지 볼이 받는 압력을 탐지하는 정교한 기술로 사용자의 키와 신체 유형에 최적화된 맞춤형 안마를 선보인다.

파나소닉 안마의자 세일 페스타

퍼스트 클래스의 격이 깃든 안마 기술 집약체,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구매하는 고객을 위해 최대 30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행사 대상 품목은 MAK1·MAJ7·MAF1·MA32·MAC9·MA22·MA05로, 다양한 제품을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기간 10월 1일~31일

가을맞이 단풍 여행 이벤트

파나소닉 안마의자 기술력의 최정점, EP-MAK1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하이원리조트 객실 이용권 1매, 조식 이용권 2매를 **선착순** 증정한다.

•이용권 유효기간
2024년 6월 30일까지

<보고, 쉬고, 간직하다>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은 엄숙한 이름이 주는 이미지와 달리 SNS에서도 '핫하다'. 반가사유상 두 점을 나란히 놓은 파격적 배치가 돋보이는 '사유의 방'부터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는 다양한 굿즈까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을 가장 많이 보유한 박물관은 계절마다 온갖 꽃·나무가 유물과 어우러진 비밀스러운 정원을 간직한 산책과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다. 내 마음에 와닿는 유물을 발견하고 하염없이 바라보는 시간도 심을 선사한다. 이곳에서 33년을 일한 '국립중앙박물관 전문가'인 저자가 박물관 즐기는 법, 유물이 품은 사연, 전시 뒷이야기를 소개한다. 마음이 박물관으로 달려간다.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아이는 천천히 팔소매를 걷어 보였고 나는 숨을 멈추었다. 아이의 하얀 팔에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가로로 그려진 칼자국들이 있었다." 첫 문장에 독자의 숨도 함께 멈춘다. 의대 교수 부모에 화목한 가정, 잘 자란다고 생각했던 10대 딸아이는 언제, 왜 그랬을까. 내과 의사인 엄마는 정신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비슷한 고통을 가진 사람들과 나누려 펜을 잡았다. 모두가 차분히 같이 읽을 책이다.

김현아 지음 창비 펴냄



<여기는 루퐁이네: 귀염뽀짝 탐구 생활>

2015년생 포메라니안 자매 루디와 풍키가 돌아왔다. 21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THE SOY 루퐁이네>를 책으로 옮겼다. 지난 3월 출간한 1권에 이은 2권에서는 '바닥에 간식이 떨어져 있다면?'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본다?'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두 강아지의 반응을 관찰한다. 차분한 루디와 발랄한 풍키가 따뜻한 웃음을 자아낸다.

루퐁이 지음 샌드박스 네트워크 감수 최진규 구성 서울문화사 펴냄



<모나미 153 브랜딩>

그토록 흔한 볼펜이 이렇게 사랑받을 줄 누가 알았을까. 올해로 출시 60년을 맞은 모나미 153의 세심스럽고도 눈부신 성공은 마케팅계에서도 기념비적 사건이다. 단순한 필기구에서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타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볼펜의 영역을 무한히 확장했다. 전문 마케터가 아닌 디자이너 출신 마케터가 그 흥미진진한 '디자인 싱킹' 과정을 밝힌다.

신동호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상상주도 VISIT KOREA YEAR 2023-2024

Swihf

꿈과 환상의 세계! 상주로 오세요!

2023

상주세계모자 페스티벌

2023.10.13. (토) - 10.15. (일) |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주최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주관  상주시 SANGJU CITY

후원  상주시경제추진위원회

후원  한국한복진흥원 KOREA HANBOK PROMOTION INSTITUTE

후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Gyeongbuk-do Culture & Tourism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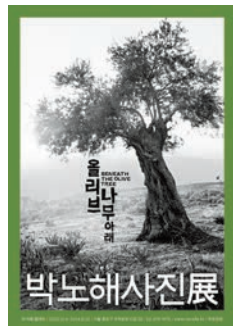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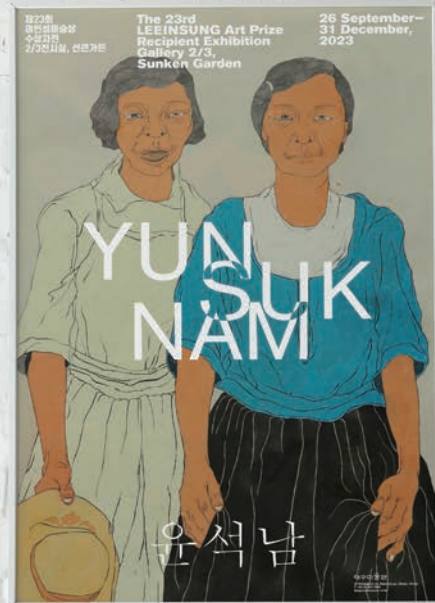
협찬  NH농협은행 상주시지부  DGB대구은행상주지점  동천수



<제23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전: 윤석남>

거대한 역사 흐름에 휩쓸린 여성의 존재를 기억하고 기록해 온 윤석남의 성취가 이인성미술상으로 이어졌다. 어머니에 대한 자전적 서사를 자양분으로 싹 틔운 그의 예술 세계는 오늘날 자연, 생명, 돌봄, 정체성 등 무한한 갈래로 확장해 왔다. 이번 전시는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담은 채색 초상화 20여 점과 유기견 1025마리를 형상화한 목조 조각, 여성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불안감과 압박감을 표현한 설치 작업, 일기 쓰듯 그려 내린 드로잉 등을 한데 선보여 소외되고 잊힌 여성의 삶을 주인공으로 불러 세운다.

기간 12월 31일까지 **문의** 053-803-7900 (대구미술관)



<올리브나무 아래>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리는 올리브나무는 예술 작품에서 중요한 신화적 도상으로 존재해 왔다. 태고의 기운을 간직한 채 광야의 사람들을 수호하고, 단단한 열매와 기름을 아낌없이 내어 주는 올리브나무의 37가지 모습을 사진 37점으로 만났다. 작가 박노해는 이렇게 썼다. “나는 천 년의 올리브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고 다시 나의 길을 간다.”

기간 10월 4일~2024년 8월 25일
문의 02-379-1975(서울 라 카페 갤러리)



<MMCA 현대차 시리즈 2023: 정연두 백년 여행기>

개개인의 범사를 주제로 삼아 온 정연두가 이번엔 20세기 초 멕시코로 이주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서사를 조명한다. 그의 레이더에 걸린 소재는 백년초다. 멕시코에서 제주도로 이식된 백년초 설화를 가져와 이민, 식민, 노동의 역사에 접근한다. 영상, 사운드, 설치 등 복합 매체 작업이 역사적 상황을 선명히 드러낸다. **기간** 2024년 2월 25일까지 **문의** 02-3701-9500(국립현대미술관 서울)




<Step x Step>

걸음. 춤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며, 발의 움직임을 뜻하기도 하는 '스텝'. 예술가들은 이 일상적 행위를 어떻게 바라볼까? 브루스 나우만, 강서경, 차이명량, 폴린 부드리-레나테 로렌츠, 클라라 리덴, 신제현, 에브리 오션 휴즈가 내놓은 작품 15점을 통해 답을 찾아본다. 걸기가 지닌 문화적 의미와 현상을 깊이 있게 응시하는 기회를 선사한다. **기간** 11월 30일까지 **문의** 02-547-9177(서울 코리아나미술관 스페이스 씨)



<로미오와 줄리엣>

세계 정상급 모나코 몬테카를로 발레단이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무대에 올린다. 유려한 몸짓과 섬세한 감성으로 애달픈 사랑 이야기를 그리는데, 정통 클래식 발레 형식이 아니라 음악이 비교적 자유로운 모던 발레를 채택해 더욱 생동감 있게 전개된다. 파격에 가까운 형형색색의 의상, 그와 대조되는 순백의 무대, 신체 곡선과 움직임 역동적으로 보여 주는 조명 장치 등이 몰입을 돕는다. 프랑스 출신 무용가이자 예술감독 장 크리스토프 마요가 공연 지휘와 안무 각색을 맡았다. **기간** 10월 13일~15일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문의 1668-1352




<22년 2개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박열과 그의 연인 가네코 후미코를 둘러싸고 변호사 후세 다츠지와 검사 다테마스 가이세이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다. 민족을 넘어 뜻을 함께했던 연인의 서사를 뮤지컬로 풀었다. 제목은 박열의 투옥 기간이자 헤어졌던 둘이 다시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한다.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배우들의 열연이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기간** 8월 31일~11월 5일 **장소** 서울 링크아트센터 문의 02-3674-7897



<연희도개비>

국가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 인형극 곡두 각시놀음 '덜미'를 기반으로 전래 동화 <흥부놀부> <도개비와 개암나무>를 각색한 창작 인형극이다. 이와 더불어 흥겨운 국악 연주, 익살스러운 재담, 화려한 상모들리기 등 다양한 전통 연희를 선보인다. 프로젝션 맵핑, 애니메이션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연출이 이야기에 재미를 더한다. **기간** 11월 3일~4일 **장소** 경기도 군포문화예술회관 문의 031-390-3500



<메밀꽃 필 무렵>

소설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각색한 뮤지컬이 4년 만에 돌아온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제작한 작품으로, 이번 공연에는 초연 연출진이 참여해 서사와 음악을 탄탄하게 보완했다. 소설 속 장면이 현실에 펼쳐진 듯 화려한 무대와 애뜻한 선율이 관객을 사로잡는다. 그윽한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좋은 뮤지컬이다. **기간** 10월 13일~14일 **장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문의 042-270-8500

횡성 한우 축제

2023. 10. 6.(금)
— 10.(화)

횡성종합운동장 및 문화체육로 일원

횡성의 인심!


한우의 자부심!



<당나귀 EO>

회색 당나귀 EO의 시선을 따라 인간 세상을 관찰한다. 서커스단에서 살던 EO를 동물보호 단체가 '구조'한 뒤 EO는 폴란드와 이탈리아를 가로지르는 긴 여정에 오른다. 농장에서 일하고, 공포의 소시지 공장에서 탈출하는 등 여러 곳을 떠돌면서 온갖 인간 군상을 마주한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백치>에서 영감을 얻은 로베르 브레송의 영화 <당나귀 발타자르>를 재해석한 작품은 당나귀를 통해 인간의 모습과 부조리를 짚는다. 여섯 마리 당나귀가 EO를 연기했는데, 동물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 촬영했다. 10월 3일 개봉.

감독 예르지 스킨리모프스키 **출연** 산드라 지말스카, 이자벨 위페르




<30일>

결혼 후 신경전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 정열과 나라는 서로를 견디다 못해 이혼하기로 한다. 법원으로부터 30일의 조정 기간을 부여받은 뒤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나고 두 사람은 동시에 기억상실 증세를 호소한다. 양가 부모는 정열과 나라가 함께 있도록 해 기억을 되살리려 한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 10월 3일 개봉.

감독 남대중 **출연** 강하늘, 정소민



<크리에이터>

고도화된 AI가 인간에게 핵 공격을 가하고, 인간과 AI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 특수 부대 요원 조슈아는 인류를 위협할 AI 쪽의 무기가 아이 모습의 AI 로봇 알피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알피는 행동과 생각 모두 실제 어린 아이와 비슷해 AI와 인간의 존재를 고민하게 한다.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시대가 머지않은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작품이 묻는다. 10월 3일 개봉. **감독** 가렛 에드워즈 **출연** 존 데이비드 워싱턴, 젤마 찬



<레슨 인 케미스트리>

1950년대. 엘리자베스는 과학자를 꿈꾸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연구실에서 해고된다. 좌절하던 중 텔레비전 요리 방송 진행자 자리를 제안받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는 요리법 이상의 가르침을 전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어 나간다. 작가이자 과학 학술지 편집자, 카피라이터인 보니 거머스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10월 13일 공개. **제공** 애플TV **연출** 브리 라슨, 제이슨 베이트먼 **출연** 브리 라슨, 루이스 풀먼

흘러가는 동구



KTX 편도 + 렌터카

여행일
2023년 10월 ~

포함 내역
서울 - 부산 1인 편도 KTX 승차권, 렌터카

불포함 내역
여행자 보험, 식대, 개인 기타 경비 등



기차여행센터
QR로 해당 상품을 확인해 보세요!

추천 코스



자성대 - 부산진시장 - 카페(MaRo) - 영가대 분터 - 썩은다리 - 구교통부 - 범일성당 - 매견시목사기념비 - 정공단 - 부산진교회 - 부산일신여학교 - 매축지마을(마굿간, 정다방)




부산 동구는 절박한 시대를 살아간 많은 이를 옷이 품어낸 곳이다. 동구는 해방과 전쟁, 산업 부흥기를 거치며 부산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 주었다. 타국에서 해방 소식을 듣고 부산항으로 돌아온 동포에게는 오래도록 그리던 고국과 재회하는 공간, 한국전쟁으로 밀리고 밀려 와 고향을 등진 피란민에게는 죽을힘으로 버텨 재기하게 한 재생의 땅이었다. 부산항과 부산역이 자리한 동구는 과거 다양한 문물이 교류하던 해안 거점 부산포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부산 동구야말로 부산의 뿌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여 지점 안내: KTX 부산역 아스티호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호텔 1층 106호

차종: 아반떼, K3
차량 업그레이드 (쏘나타, K5): + 30,000원
자차 보험: 현장 결제

 **KTX 공식 협력 여행사**  **전화 문의 1899-2550**

 **카카오톡 채널 상담 '기차여행센터'**
masihub.com/busanlocal



Letters from Readers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태화강에서 장생포까지, 울산 남구

표지 사진에 이끌려 잡지를 펼쳤어요. 특히 장생포 관련 내용은 울산 남구에 대한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모노레일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울산 남구로 여행 가고 싶어졌습니다.

김세광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여행자와 여행지를 잇다, 이을프로젝트

<KTX매거진>을 본 후, 캠핑가 '꿈카'를 이용해 땅끝마을 전남 해남에서 차박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은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해남으로 떠나는 계획을 세워 소중한 추억을 만들려고요.

문이원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과 들려주고픈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10월 15일입니다.

기차로 여행하면서



KTX가 경북 포항까지 연결해 주니 울릉도 찍고 독도까지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간직한 울릉도와 가슴 뭉클한 독도의 풍경... 일정이 빡빡해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성영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KTX매거진>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에서 온 100퍼센트 천연 유기물질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탄력 및 모공 관리,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약산성 풀빅 헤어 샴푸&토닉 세트(7만 원 상당)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수오 뿌리, 병풀, 창포 뿌리, 어성초 등 식물성 원료 6종이 예민해진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어 가늘고 힘없는 모발을 튼튼하게 해 주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제품 문의 1522-9158



Information



제11회 철도사진공모전 동상 수상작 '강 따라 가을로 달리는 기차'



- 102 코레일 소식
- 11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12 열차 이용 안내
- 114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 자유석 검표, 직접 하고 편히 쉬세요



10월부터 KTX 자유석 승객은 '셀프 체크'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앱 '코레일톡'으로 자유석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해 스스로 검표하는 방식이다. 열차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시 검표로 인해 발생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다.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 현장 안전 점검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이 지난 9월 대전조차장역과 맥포터널 등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한문희 사장은 대전북연결선 구간을 살핀 후 안전 취약 개소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직원 근무복으로 만든 응급용품 파우치 기부



업사이클링으로 환경을 살리고 이웃과 정도 나눈다. 한국철도공사가 직원 근무복을 활용해 만든 응급용품 파우치를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는 기부 챌린지의 일환으로, 직원이 입지 않는 근무복 중 품질이 좋은 것을 선별해 파우치로 제작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코레일사이클단 힘내라!"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이 대전 본사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코레일사이클단 선수들을 격려했다. 자리에 함께한 선수는 김현석, 허승수, 진용식 세 명이다. 이들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국제무대에 선다.



KTX 이용객 10억명 돌파! 총운행 거리 6억 2000만 킬로미터, 국민 한 명당 스무 번 탄 셈

2004년 4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한 KTX가 지난 8월 31일 누적 이용객 10억 명을 넘었다. 대한민국 국민을 500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당 스무 번씩 KTX를 탑승한 수치다. 누적 운행 거리는 지구 둘레 1만 5500바퀴에 해당하는 6억 200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올해 KTX 하루 평균 이용객은 22만 6000명. 2004년 7만 2000명과 비교하면 무려 세 배 넘게 증가했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생활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을 꼽자면 정기 승차권을 활용하는 '장거리 출퇴근족' 증가

다. 지난해 정기권 이용객은 개통 첫해와 비교해 8.7배 늘어났다. 이에 열차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횡수 차감형 할인 카드 'KTX N카드'를 선보였다. 고객의 편의를 한발 앞서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톡과 홈티켓 등 비대면·온라인 매체를 적극 신설·활용해 고객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 온라인 승차권 예약 서비스를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한국철도공사는 늘 고객을 위해 열심히 달린다.

당신과 KTX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KTX 누적 이용객 10억 명 돌파(2023.08.31)를 기념해 '국민이 KTX와 맺은 소중한 사연'을 공모했습니다. 최우수작과 우수작 두 편을 웹툰으로 소개합니다.



2004년 4월 1일 첫 운행을 개시한 KTX가 국민의 생활 속 에 함께한 지 19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KTX를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TX 산천

조립 블록 출시



판매처 / 일정 가격
전국 스토리웨이 / 10월 중순 48,000원

- 상품 구성
- ① 브릭(KTX-산천 2량, 직원 및 고객 미니 피규어 6기, 열차 선로)
 - ② 카드보드 박스(스토리웨이 매장)
- 문의처 코레일유통 02-526-6265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추후 코레일 SN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2개 구매 시 열차 연결 가능!

KORAIL SNS



코레일의 새로운 열차 ITX-마음을 소개합니다. 빨강과 검정의 색채 조합, ITX-마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코레일, 이런 것도 만들어?_코레일 직원 크리에이터를 소개합니다. 유튜브 '나랑 기차 탈래?'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남만과 추억의 경춘선_폐선이 된 경춘선. 유정 열차와 레일바이크를 탑니다. 지금 바로 김유정역으로 떠나요! (코레일 명예기자 @우물안개구리)



서울역과 가까운 여행지_서울역에서 여행을 시작하는 분을 위한 영상! 남산서울타워에 꼭 보세요. (코레일 명예기자 @이얏 Next Travel Project)



지구에서 태양까지 KTX로 왕복?_10억 명이 탄 KTX. 지구에서 태양까지 몇 번 왕복할 수 있을까요? (코레일 명예기자 @공작소)



충주역에서 삼탄역까지_기차 타고 싶은 날, 홍윤이 네가 맑고 푸른 충북 충주역으로 떠났습니다. (코레일 명예기자 @홍윤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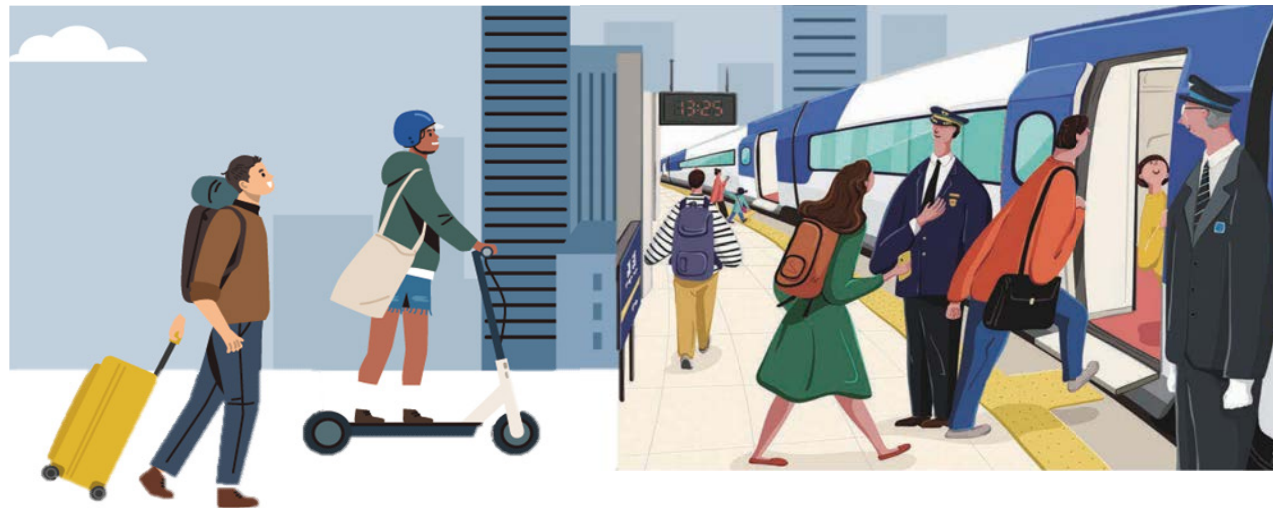
*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차 타면 PM 이용 요금 무료

광명역, 부산 오시리아역, 김천(구미)역, 순천역

한국철도공사는 9월부터 연말까지 광명역, 부산 오시리아역, 김천(구미)역, 순천역에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무료 서비스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이용객은 QR코드를 스캔해 접속, 희망하는 시간에 역 내 거치된 퍼스널 모빌리티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고 지정된 주차 zone에 반납 후 설문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 본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 R&D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수집된 설문 조사 결과와 주행 데이터는 철도 이용 편의 향상과 질서 있는 공유 모빌리티 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가 R&D 목표

실증 데이터 기반 퍼스널모빌리티 통합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

대중교통을 연계한 퍼스널모빌리티 공동 플랫폼(MaaS) 구축

퍼스널모빌리티 안전교육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안전한 퍼스널모빌리티 문화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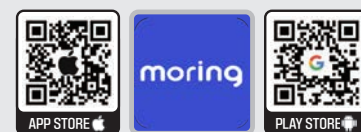
무료 이용 방법

- 1 PLAY STORE / APP STORE에서 지역별 APP 다운로드(아래 QR코드)
- 2 APP 실행해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3 결제 수단 및 면허 정보 등록
- 4 이용 방법 및 규정 숙지
- 5 내 주변 PM 기기의 QR코드 스캔
- 6 이용 수칙 준수해 안전하게 이용
- 7 정해진 주차 zone에 반납 후 만족도 조사(쿠폰 발급)

광명역, 오시리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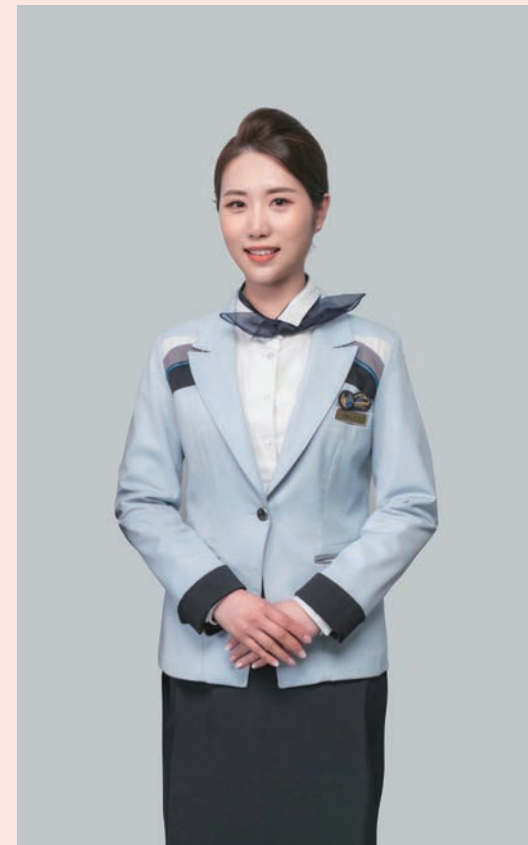
김천(구미)역



순천역



친절 직원을 소개합니다



고객의 편지

서울에서 경기도 양평으로 가는 KTX-이음 817 열차를 탔습니다. 돌이 막 지난 아기와 함께 다니는 지라 평상시에 꼭 열차 좌석을 예매하곤 합니다. 그 날은 진료가 빨리 끝나 예매한 승차권 시간을 변경했는데, 자리가 입석밖에 없더군요. 날이 더워 땀 흘리며 자는 아기를 끌어안고 서 있자니 조금 힘들었습니다. 마침 검표 중이던 조세진 승무원님이 제게 어떤 역으로 가는지 물었고, 대답을 듣고 난 후 양평까지 가는 빈자리를 찾아 주셨습니다.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표를 예매하지 않은 스스로를 탓하던 초보 엄마는 승무원님의 친절로 위로를 받았답니다. 아기와 함께 다녀도 괜찮다고 응원받은 느낌이었습니니다. 아기와 기차 탈 때마다 친절하신 조세진 승무원님이 생각날 것 같아요. 나중에 아기한테도 꼭 말해 줄 거예요.



조세진 승무원(코레일관광개발)

유독 더운 날인 데다 빈자리도 없어서 아기와 함께 입석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이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순회 도중 마침 양평까지 비는 자리를 발견해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한 서비스로 고객님께 감동을 드려야겠다고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을 살피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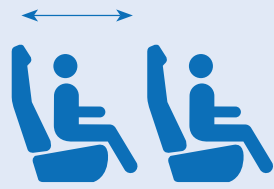
코레일을 이용하며 기억에 남는 친절 직원이 있다면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고객의 소리로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편의 시설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93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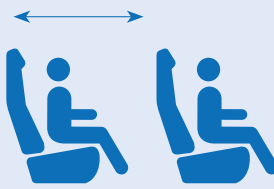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112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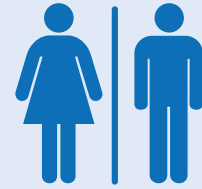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AMENITIES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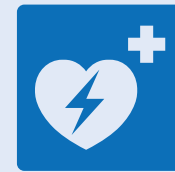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 (ITX-새마을, ITX-마을,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도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99-78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 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광명역) 약 55분, (T2↔광명역) 약 8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터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Rail+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이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 (Android, iOS)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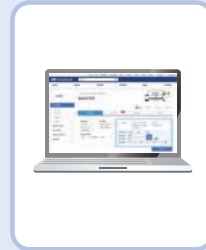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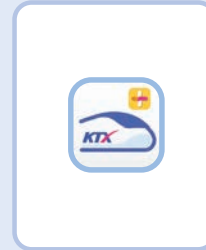
열차 이용 안내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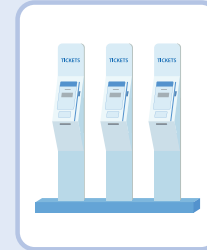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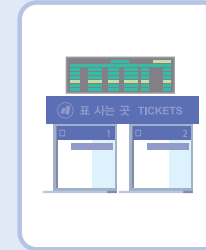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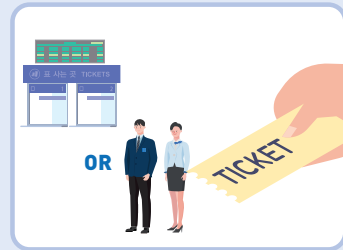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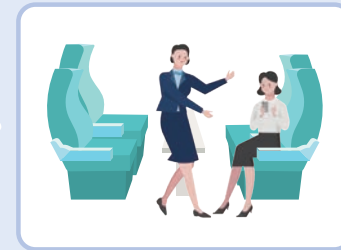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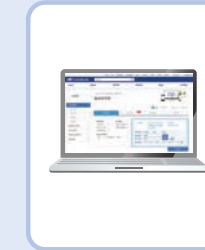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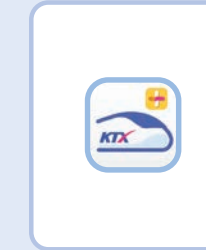
PASSENGER GUIDE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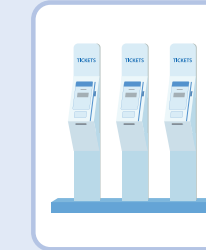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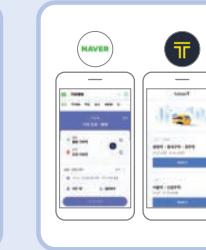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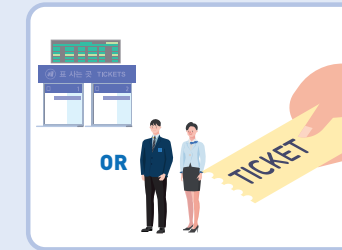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 · 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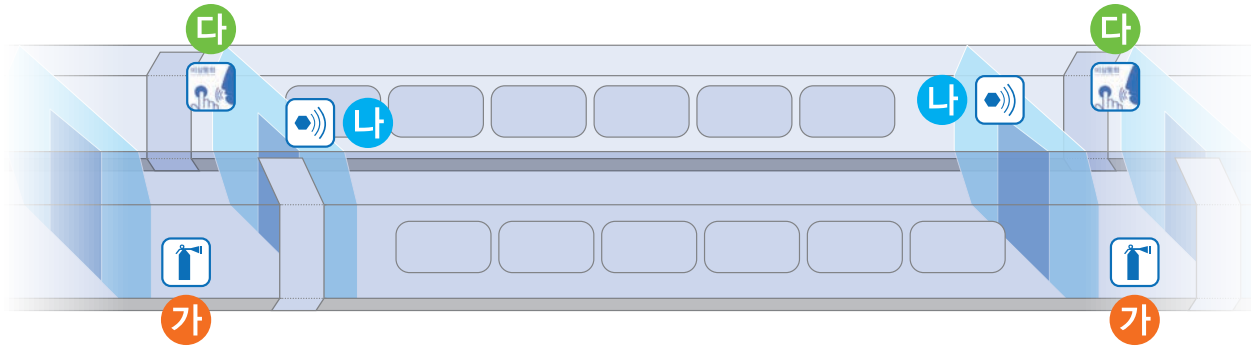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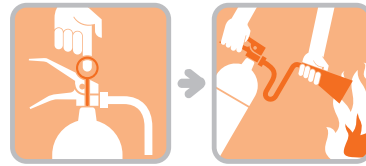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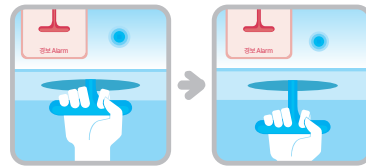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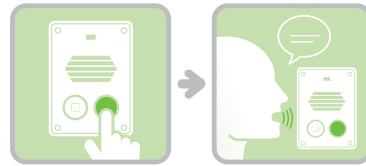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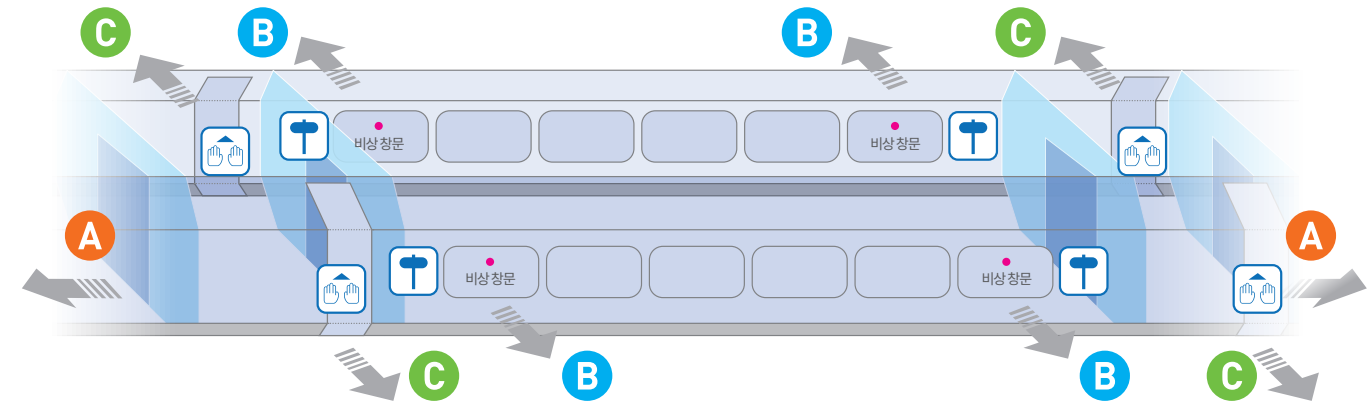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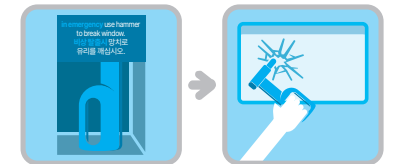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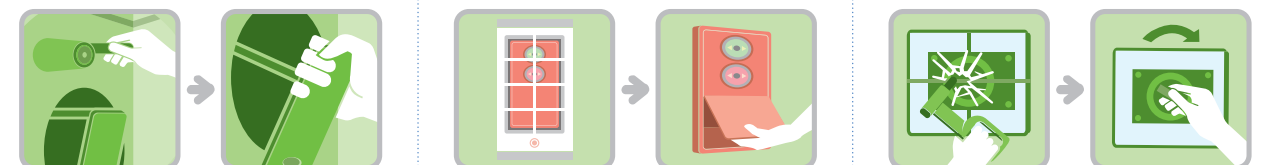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pilogue



여백에서, 추모

20대 몇 년을 청량리에서 살았다. 홍릉수목원, 홍릉사거리 같은 이름 때문에 홍릉이 궁금해졌고 명성황후의 능이지만 남양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왕릉이 있던 동네는 호젓했다. 수목원 앞 도로엔 차가 드문드문했고, 걷는 이는 더욱 없었다. 키 큰 나무가 양옆에 늘어진 길을 자주 산책했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색과 공기를 느꼈고, 이것만으로 충만하던 감탄을 최초로 해 보았다. 과거, 현재, 미래, 나, 타인, 삶, 죽음... 온갖 데로 생각이 뻗어 나가기도 했다. 왕릉이 떠나고 수목원이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이달에 의릉을 취재했다. 주택가와 상가를 지나 문득 나타나는 왕릉은 감동과 사색의 시간을 선사한다. 삶의 공간도 필요하지만 죽음을 위한 여백도 필요하다. 죽음을 예우할 줄 모르는 사회가 생명을 귀히 여기라. 이태원 참사 1주기다. 다시금 고개 숙여 추모합니다. **김현정**

사랑하는 고장, 고창

9월호 '편집 후기'에 10월호 출장지를 예고하는 퀴즈를 냈다. 답을 제보한 이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 (이 지면을 보고 있을 애독자, 포토그래퍼 강신환 선배에게 감사름.) 여기 도착한 독자님이라면 아시겠지만 정답은 전북 고창이다. 선운사와 도솔암, 동호해수욕장부터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다 훑었어도 고창음성은 처음이었다. 눈부신 성곽과 맹종죽림, 투명한 가을 하늘이 삼위일체로 축복의 시간을 허락했다. 고창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염영선 문화관광해설사님의 능란한 인솔, '고창 방문의 해'를 홍보하는 관광산업과 김아름 주무관님의 다정한 독려가 여정을 더 풍요롭게 했다. 언제나 그렇듯 길 위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행운은 사람, 또 사람이다. 여러분의 여행에도 행운과 신명이 깃들길 바라며, 이 계절과 어울리는 그림한 점 보여 드린다. 고창 출신 홍순무 화백의 '농악'이다. **강은주**



넉넉한 마음, 건강한 가을

1. 충남 금산에 다녀왔습니다. 배순철 '조팝꽃 피는 마을' 위원장님을 따라 인삼밭에서 인삼도 캐었습니다. 인삼이 어땠냐고요? 일명 '왕손'인 제 손보다도 조금 더 큼니다. 무엇보다 흙냄새와 섞인 달콤한 인삼 향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체험하며 담긴 인삼주는 12월에 <KTX 매거진> 편집팀이 다 함께 열어 볼 예정입니다! 즐거운 취재였어요~ 2. 결국 코로나19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슈퍼 면역자'인 줄 알았던 저, 반성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산적한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도래했습니다. 일하는 속도가 더져서 선배들이 저 때문에 퇴근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모두 가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육송이**

수석에서 낙지 찾기

"작품의 이름은 곰돌이입니다. 곰 인형처럼 생겼죠? 여기 이 수석도 특이합니다. 제가 '쫄쫄'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전남 신안 1004 뮤지엄파크, 하고도 1004점 수석미술관에서 원수철 관장님이 '열광'을 하십니다. 입구에 놓인 커다란 '똥뚜꺼비'에서부터 웃음이 터졌습니다. 안에는 더 재미있는 작품이 많더라고요. 관장님이랑 한참 수다를 떨었습니다. 별안간 작품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해야만 본연의 색이 드러난다는군요. 일정을 미루고 여기 모든 작품에 물을 뿌리고 싶을 정도로 신이 났답니다. 믹스커피 마시며 관장님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네요. '테마 여행' 기사에서 언급한 수석 작품 '신안 빨낙지' 사진을 첨부합니다. 정말 낙지와 똑 닮았나요? **남혜림**



Puzzle 90쪽 '퍼즐' 정답



EXCO
Hall 4,5,6

NOV 3-5
2023

Diaf



DAEGU
INTERNATIONAL
ART FAIR

- 대구화랑협회
- Diaf 운영위원회
- 대구광역시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영지원센터
- 비씨카드
- THE HYUNDAI
- DGB대구은행
- 대경대학교
- 태왕
- SR

바로 지금, 여행

KTX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고창



고아하고 당당한 아름다움, 고창